

2023-R-01 □ 2023. 05.

2022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본

한살림의 사회적가치 보고서

모심과살림연구소

목 차

발간사	1
I. 사회적 가치 연구와 한살림	3
1.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	4
2.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6
II.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13
1. 내부 의견 수렴 전체 과정	14
2.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측정 지표 설정	15
III. 2022년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25
들어가며 - 한살림 현황과 조직 구조	26
1. 핵심지표1 -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28
1) 지표항목1-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는 의사결정구조	28
2) 지표항목2- 소비 현황	31
3) 지표항목3- 생산자-소비자 교류	36
4) 지표항목4-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37
2. 핵심지표2 - 생산 안정성 확보	39
1) 지표항목1- 생산 현황	39
2) 지표항목2- 생산의 안정성	43
3) 지표항목3-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47
4) 지표항목4- 물품안전성 관리	48
5) 지표항목5-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49
3. 핵심지표3 -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51
1) 지표항목1- 기후위기 대응	51
2) 지표항목2- 자원 재활용	52
3) 지표항목3- 생물다양성 확보	58
4) 지표항목4-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59
4. 핵심지표4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60

표 목 차

1) 지표항목1- 조합원의 거버넌스	61
2) 지표항목2- 조합원 활동 참여	64
3) 지표항목3- 조합원 의견 수렴	67
4) 지표항목4- 조합원 참여의 다양성	68
5. 전략지표1 -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70
1) 지표항목1- 일자리 창출	70
2) 지표항목2-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73
3) 지표항목3- 성비균등 근로조건	77
4) 지표항목4- 교육 및 훈련 제공	78
5) 지표항목5- 직원의 건강과 생활	79
6. 전략지표2 -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	80
1) 지표항목1- 지역사회 연대 및 정책 참여	80
2) 지표항목2- 지역사회 돌봄 참여	80
3) 지표항목3-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여	82
4) 지표항목4- 지구촌 생명살림운동 참여	84
IV. 결론 및 과제	87
1.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별 측정 결과	88
2.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과제	96

표1. SDGs 5대 분류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주요 지표들	5
표2.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실천	8
표3.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의견 수렴 과정(요약)	14
표4.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과 인식 정도(5점 만점, 평균값)	15
표5. 지표의 중요성, 탁월성,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응답	16
표6. 주요 이해관계자가 설정한 지표 우선순위	17
표7.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여섯가지 지표	18
표8.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의 지표 유형과 항목, 세부지표	20
표9.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 제안 의견	22
표10. 쌀 가격 비교	30
표11. 연령별 물품 이용금액 추이(2017~2019)	35
표12. 한살림 외부 유통 공급액 추이	35
표13. 먹거리 사회정책 의제 참여	38
표14. 생산자 연령 비율(%)	41
표15. 농가당 수취액(원)	42
표16. 한살림 생산면적 추이(2017~2021)	45
표17. 한살림 참여인증제도 시행 상황(2019~2022)	47
표18.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 상황	49
표19. 온실가스 총 감축량(톤) 추이(2017~2022)	52
표20. 유리병 회수, 재사용율 추이(2017~2021)	53
표21. 공급상자 재이용 횟수 추이(2020~2022)	54
표22. 홍보 및 사무공간 자원 절약	57
표23.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 상황	59
표24.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 현황(2017~2021)	61
표25.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현황(2017~2021)	64
표26. 조합원 기초조직 참여 현황 (2017~2021)	65
표27.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66
표28. 조합원 의견 접수와 처리	67

- 측정 기준: GRI, SDGs, ICA 가이드라인 등 취합 반영
- 측정 범위: 한살림연합, 사업연합 및 지역생협과 지원기관 포함
- 측정 기간: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최근 5개년 데이터 비교

그림 목 차

표29. 물품개발과 공급	68
표30. 한살림 조직의 일자리 창출	70
표31. 생협 조직의 활동가 고용 현황(성비 포함)	71
표32. 생협 활동가 고용 규모	71
표33. 사회적 약자 고용(2016~2018)	72
표34. 노사협의회 운영	74
표35. 생산지 노동자 고용 현황	75
표36. 직원 교육제도	78
표37. 직원 교육 만족도	79
표38. 사회적경제 물품 판로지원	82
표39. 사회적경제 연대 활동	83
표40. 국제협력 사업	84
표41.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에 따른 측정 결과 요약	92

그림1. 한살림 미션과 SDGs 지표들	7
그림2.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15
그림3. 한살림 조직	26
그림4.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결정하는 한살림 의사결정 구조	29
그림5. 한살림연합과 사업연합 내 구성	29
그림6. 전체 조합원 수(세대)	32
그림7. 전년 대비 조합원 수 증감률(%)	32
그림8. 물품이용액(백만 원)	33
그림9. 전년대비 조합원과 공급액 증감률(%)	33
그림10. 세대별 조합원 가입수(명)	34
그림11. 세대별 이용금액(천원)	34
그림12.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도농교류) 횟수와 참여 인원	37
그림13. 생산농가(세대)	39
그림14. 전년 대비 생산자 회원수 증감률(%)	39
그림15. 생산공동체 연령대(명)	40
그림16. 생산자 세대별 추이(명)	40
그림17. 농가당 수취액(원)	42
그림18. 생산안정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원)	44
그림19. 가격안정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원)	44
그림20. 각 항목별 계약 생산량(톤)	46
그림21. 각 항목별 계약 재배면적(평)	46
그림22. 한살림 물품 안전성 관련 검사 총 횟수(회)	48
그림23. 온실가스 총 감축량(톤)	51
그림24. 유리병 공급량 대비 회수율(%)	53
그림25. 포장재 개선 품목수(개)	55
그림26.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매장수(개)	55
그림27.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이용자(명)	56
그림28.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이용액(원)	56

발간사

그림29. 토박이씨앗 생산면적(평)과 공급량(kg)추이(2017~2021)	58
그림30. 한살림 회의체계	60
그림31. 조합원 기초조직 참여율(%)	65
그림32. 생활용품 공급에 따른 행복기금 적립(원)	81
그림33. 옷되살림 운동 참여 추이	85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저마다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살림생협으로 말하자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지역살림’이라는 구호가 달성하려는 사회적 가치들이 여럿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열심히 검사하는가 하면, 탈핵이나 GMO 반대 같은 실천 활동을 벌입니다. 또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를 알리는 도농교류 활동과 식생활 운동을 합니다. 식량의 자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운동과 순환경 농업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되살림 운동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전환 운동을 벌이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위협하는 마구잡이 개발사업에 반대합니다. 이런 다양한 살림운동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연결하고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러한 사업과 운동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연 그 성과는 충분한지, 성찰하고 더 정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정작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이런 성과를 종합적으로 모으고 평가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으니 외부에서는 더욱 알 턱이 없겠지요. 분명 우리가 긍지를 가져도 좋을 만큼의, 한살림이 이룩한 사회적 성과가 있을 터이고, 만약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한살림의 존재의의와 사명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10년여 전부터 한살림이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여기 <한살림의 사회적가치 보고서>가 이런 오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연구소뿐 아니라 한살림 안팎의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미숙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손에 쥘 측정 도구를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조금씩 고치고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지표들은 바라보며 감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활동을 분석하는 데 쓰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 부족한 것, 고쳐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유용한 지표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한살림의 사회적 성과가 널리 공유되고, 그럼으로써 한살림을 이용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지며 브랜드의 가치도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5.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신 명 호 모심

01

사회적 가치 연구와 한살림

1. 사회적 가치 연구와 한살림

1.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¹⁾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기후위기와 COVID-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그리고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과 사회갈등의 확산이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사회문제는 특정 조직 또는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 민간단체, 개인이 모두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기업, 시민사회는 지금까지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들은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 윤리적 소비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의 공익에 참여하고, 기업은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 ESG²⁾ 경영 등 사회적 책임(CSR)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재정과 투자 자원의 공평한 배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사회 또한 기존의 사회운동 영역 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새로운 비영리 경제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자본주의적 이윤추구가 결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지속불가능한 상황을 낳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새로운 가치인식이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즉, 개별적 분파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통의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는 합리적 자기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인간사회가 오랫동안 있어왔던 공동체와 나눔이라는 ‘오래된 미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Impact} 개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이사회(EC)는 생산과 분리된 금융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배분, 성장의 포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증대를 지적했다. 특히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 취약층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등

1) 사회적 가치 개념 및 한살림 사회적가치에 관한 논의는 2019년 모심과살림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성수·김이경,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측정 개발 연구>, 모심과살림연구소, 2019. 이하 이 절의 내용도 이 보고서를 참고했다.

2)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거버넌스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이지만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

주요 국가에서는 사회 부문 강화와 보다 공정한 시스템으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유럽 사회적 권리 증진³⁾’이 공표되면서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를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주성수 외, 2019:4)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노동 조건,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포용 등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UN 차원에서는 2000년 MDGs⁴⁾의 채택으로 본격화되었다. MDGs는 빈곤 퇴치, 부패, 투명성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후 UN지속가능개발연구소(UNRISD)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드라이버⁵⁾’(2014)를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사회 구조를 강조했으며, 2015년 SDGs⁶⁾ 발표로 이어졌다.

<표1. SDGs 5대 분류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주요 지표들>

	SDGs	UNDP(2016) SDG16+ 분류	한국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인간 (People)	1(빈곤), 2(식량), 3(보건), 4(교육), 5(젠더평등)	1,2,3,4,5 및 6(식수), 8(일자리), 10(불평등해소), 16(평화 인권)	1(인권), 4(노동권), 5(사회적 약자), 7(일자리), 11(민주적 참여)
지구 (Planet)	6(식수), 12(소비생산), 13(기후행동), 14(해양), 15(생물다양성)	6(식수), 12(소비생산), 13(기후행동), 14(해양), 15(생물다양성)	2(안전근로), 11(환경지속가능성)
번영 (Prosperity)	6(식수), 12(소비생산), 13(기후행동), 14(해양), 15(생물다양성)	6(식수), 12(소비생산), 13(기후행동), 14(해양), 15(생물다양성)	2((안전근로), 3(보건복지), 6(대중소기업 상생), 7(일자리), 8(공동체), 9(지역경제), 10(사회공헌)
평화 (Peace)	16(평화 인권)	SDG16+ SDG 1,4,5,8,10,11,17	13(기타 공공성)
파트너십 (Partnership)	17(파트너십)	17(파트너십)	13(기타 공공성)

※ 주성수 외, 2019:32 재인용.

3)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4)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5) Social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6)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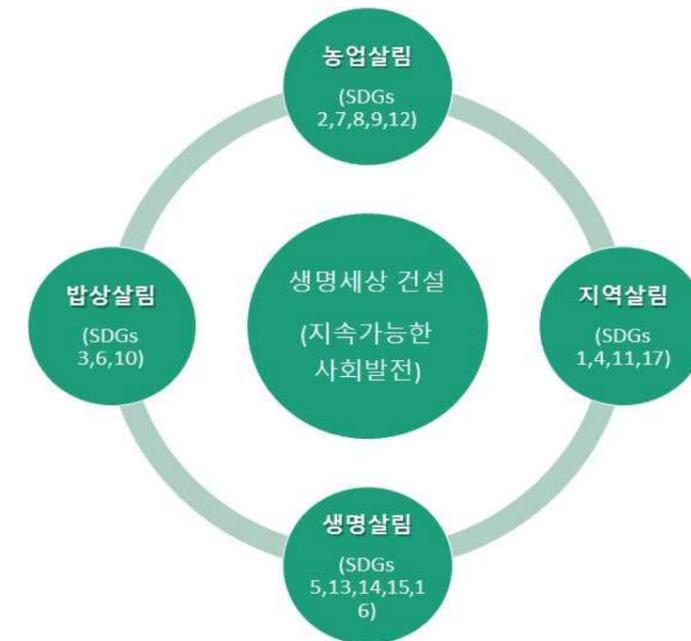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최근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사회 문제의 공동책임이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소셜임팩트^{Social Impact}, ESG 등을 홍보하거나 SDGs를 기준으로 한 경영목표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등 관련 입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조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기준으로 기관별 사회적 가치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2019)와 같은 지방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또한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세계 흐름에 맞추어 ‘향후 10년을 위한 협동조합의 청사진’(2013)에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창출을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2016년에는 「협동조합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북」⁷⁾을 발간하고 협동조합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협동조합 또한 전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ICA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기업보다 뒤쳐져 있음을 언급하며, 협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미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국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측정하는 연차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외의 논의 내용은 1980년대 이래 한살림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지역살림의 가치 지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살림선언」(1989)은 “자연파괴, 인간소외, 사회분열, 경제의 악순환, 권력의 억압, 사상의 혼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맞서 생명, 자연,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통해 자기수양과 생활문화활동, 사회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생명살림의 세상을 창조해 나갈 것을 제창한바 있다. UN SDGs의 17개 사회적 가치 지표 - 1(빈곤퇴치), 2(식량), 3(보건), 4(교육), 5(젠더평등), 6(식수), 7(에너지), 8(일자리), 9(인프라), 10(불평등 해소), 11(도시), 12(지속가능한 생산), 13(기후행동), 14(해양), 15(생물다양성), 16(인권평화제도), 17(파트너십) - 들도 한살림이 지향, 실천하는 4대 미션과 의미가 상통하고 있다.

7)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Cooperatives: A Guidebook



<그림 1. 한살림 미션과 SDGs 지표들>

이와 같은 SDGs와 한살림 미션과의 상관성은 비단 SDGs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에 있는 13가지 사회적 가치의 유형⁸⁾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SDGs나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개념, 기업의 ESG 경영가치 등이 한살림의 미션과 일맥이 상통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 지향이나 핵심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UN SDGs의 경우,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국제적 협상의 산물로서 저개발국에 대한 시혜와 원조, 미국과 유럽 국가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라는 배경을 외면할 수 없다. 정부나 기업의 ‘사회적 가치’ 개념 역시 핵심적, 필수적, 대안적 가치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개발주의 가치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부수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Public Service(Social Value) Act』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2012] 시행 지침서 상에 규정된 사회적 가치 개념은 “재화, 서비스 및 결과의 직접적 구매의 위탁/조달에 따른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된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적 혜택(additional benefit)”이라고 되어 있다. UN과 국제사회, 국내의 정부나 기업 모두 사회적 가치를 기존의 개발 가치, 생산 가치를 보완하는 ‘일출효

8) 13가지 사회적가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6.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과(spillover effect)'로 본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이에 비해 한살림의 4대 미션은 한살림의 핵심 가치로서 조직과 운동, 사업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로 자리매김된다. 지금까지 한살림이 수행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지역살림의 실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실천>

미션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밥상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를 알리는 도농교류활동과 식생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운동, 식품안전 활동, 안전한 먹을거리 안내자 양성, 가까운 먹을거리운동 · 농림수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 지정 기관으로 한살림식생활교육센터 설립(2011년), 연합 식생활센터로 개편(2015년), 식생활교육활동가 양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엄격한 자체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 등을 통한 농약, 유해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GMO, 방사성물질 검사 · 조합원 참여형 자주관리 및 자주점검활동 먹거리 안전을 위한 사회실천 활동(탈핵, GMO 반대 등)
농업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을 포함해 한국 농업 전체를 지키고 살리기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개방화와 수입농산물 증대에 대한 대응 노력 · 녹색혁명형 산업농에 대한 대안적 농업모델 개발 · 국민농업시대에 생산자 농민의 희망이 되는 도시 소비자 조직 만들기. 한고랑 나눔운동 · 귀농자, 청년생산자, 소농, 일반 농민들과 함께 하는 농업살림 운동 · 도농교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관계 밀착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기반 향상과 순환형 농업을 위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살림 운동(농지살림주식회사, DMZ평화농장 등) · 토종종자 보존운동(토박이씨앗살림, 토종종자 물품 개발 및 취급 등) · 우리밀살리기, 우리콩살리기, 우리보리살리기 운동(한살림안성마춤식품,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설립, 발아보리가공공장 운영 등) · 종자, 사료, 퇴비 등의 자급 노력으로 지역순환형 농업 실현 · 한살림농법 개발 및 보급, 후계농 육성 지원, 참여인증 확대
생명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한 물살림, 땅살림, 되살림(리사이클)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재사용 운동(안성물류센터에 병 재사용 세척시설) · 장바구니 들기, 비닐 안쓰기, 재생비누 만들기, 옷 되살림 등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 및 자립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취급물품 2천종 중 가까운 먹을거리 관련 150여 종 품목을 개발하여 취급) · 탈핵 캠페인과 햇빛발전소 건립 2008년 한살림서울(충북괴산 생산지)과 성남용인(강원홍천 생산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빛발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 안성 물류센터, 대전, 횡성에 햇빛발전소 건립 · 2022년 기후밥상 운동 ·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실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해군기지, 송전탑, 골프장, 케이블카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개발사업 반대, 재난구호와 농업살림을 위한 국제교류 및 지원 등 · 세월호 참사 후 '생명'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
지역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의 다양한 살림운동을 지역 커뮤니티 차원으로 연결하고 뿌리내리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의 확장: 조합원 활동 영역을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장 · 내용의 확장: 먹거리는 물론 돌봄, 복지,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생활의 제들을 포함 · 공간의 확장: 한살림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살림의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장, 농촌 생산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살림운동 전개(향후 과제) ·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지역에서 살림의 그물망을 만들어 협동조합지역사회로 나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에 기반 하되 한살림을 넘어, 먹거리에 기반 하되 먹거리를 넘어, 조합원 활동에 기반 하되 이웃과 더불어, 협동의 힘으로 생활 속 필요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공동으로 생산해 냈으므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자급 문제는 전체 한살림 조직과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또한 한살림의 먹거리, 돌봄 등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SDGs와도 밀접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한살림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은 내부에서 종합되어 평가되고 꾸준히 성장하기보다는 부문과 지역, 운동 영역별로 분절화되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그 효과가 정확히 파악되고 전파,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아가 현재 한살림의 다양한 가치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한단계 발전된 가치 실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현재 84만 명의 조합원, 2300여 생산자, 약 5천억 원의 공급규모에서 보듯이 한살림이 출범한 1980년대 중반과는 한살림의 양적, 질적 운동조건과 환경이 크게 다르다. 그 사회적 영향이 비할 바 없이 증대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살림의 존재 의미,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은 조합원 총회를 넘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알려질 필요가 있다. 또 그 사업과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이며, 나아가 방향은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은 환경을 이롭게 하며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성을 넘어, 또한 존재와 가치를 등치하는 단순함을 넘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한살림 각 영역, 부문의 가치 실천이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다 검증가능성 형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가치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경영'이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기업, 기관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고는 지향과 현실 사이, 성과와 한계 사이에서 정직함과 비판적 자기 성찰의 산물이어야 한다. 이것이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기존의 것과 구별짓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한살림에서 기 발행하고 있는 「연차보고서」가 이미 사회적 가치 보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혹은 중복되는 문건 발행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그러나 「연차보고서」와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는 발행의 목적에서부터 평가 측정 범위, 결론까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는 한살림의 사업·활동을 정량적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으로 기술하여 성과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미진한 점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매해 초반에 발행되고 있는 「한살림 연차보고서」가 주로 한 해의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 목적이 부각된다면,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의 설정, 목표 달성 여부, 한계와 과제, 추가 측정 데이터 발굴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정렬하고 측정,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이 나아가는 방향과 장·단기적 목표, 그리고 그 실행과정에서 극복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한살림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 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의 한살림 이용과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긍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살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곧 조합원의 이용과 참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면, 조합원의 이용, 참여가 곧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한살림이 단순한 유기농 먹거리매장이 아닌 생명살림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20~30대는 환경과 사회에 부담을 덜 주는 가치지향적인 소비에 관심이 많다. 한살림 조합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20~30대의 가입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와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들의 가치지향적 소비에 부응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조합원의 긍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조합원들은 한살림의 경제적 성과 외에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살림의 활동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어 대내외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총회 참석자와 대의원 등 소수의 조합원이 확인하고 있는 자료를 보다 많은 조합원(잠재적 조합원 포함)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한살림의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한살림의 근본 사명과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표와 측정 데이터 정리 작업을 통해 한살림이 생산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집계와 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또한 향후 이 과정이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전산화 작업으로 이어진다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결과(output)를 카운팅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impact) 측정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한살림 활동과 사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정량적 데이터뿐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를 포괄한다. 이 과정에서 물품사업 또한 한살림운동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업과 운동을 추진할 때 간과한 부분을 포착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장기적인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취약한 부분을 빠트리지 않고 검토하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조합원뿐 아니라 생산자와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긍지를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살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일하는 실무자 활동가 임원들이 분명한 목표의식, 자기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는 다른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여섯째, 한살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강화될 것이다. 한살림은 현재도 조합원과 생산자의 연대를 통한 상생과 생명운동을 어느 기업, 협동조합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살림은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고 복제하기 힘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한살림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공고하게 해줄 것은 분명하다.

02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

내부 의견 수렴 과정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측정 지표 설정

II.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

1. 내부 의견수렴 전체 과정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해서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국내외 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 지표를 비교하고,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2017)과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측정 개발 연구>(2019)보고서를 작성하고 지표 초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살림 내부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국내외 문헌자료와 한살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한 1차 지표를 제안한 후 내부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1차 지표와 관련하여 한살림연합 전략기획회의 등에서 내부 검토를 거쳤다. 다섯째, 1차 지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3.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의견 수렴 과정(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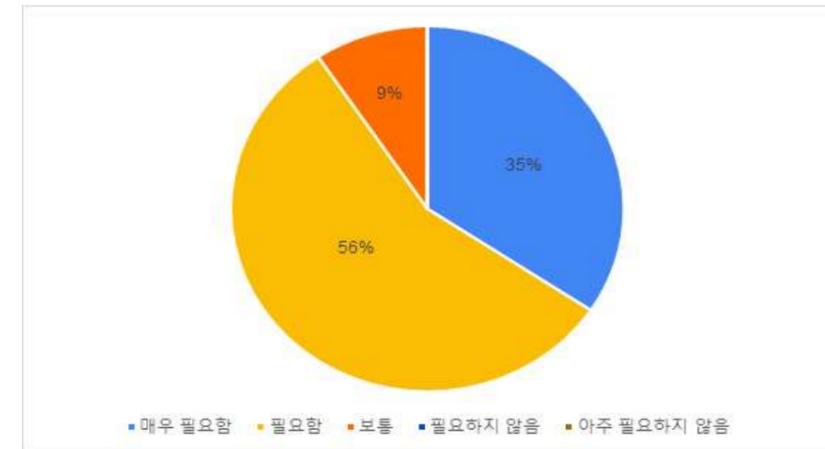
순서	시기	내용	비고
1차	2019.10	국내외 사회적 가치 지표 맵핑을 통한 지표 초안 제안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측정 개발 연구>(2019)
2차	2019.11	한살림 내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지표 초안 의견 수렴	한살림연합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원 인터뷰
3차	2020.1 2020.11	1차 지표 제안 내부 의견 수렴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측정 개발 연구>(2019)
4차	2021.6 ~2021.9	한살림 내부 회의 진행	한살림 내부 전략기획회의 검토
5차	2022.2 ~2022.6	한살림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지표 우선순위 결정	한살림연합 이사회, 한살림사업연합 이사회, 생협사업추진회의 등 조합원대표 및 실무진 설문 참여
6차	2022.7 ~2022.9	연구진 논의를 통한 세부내용 검토	추가 지표 제안 등

2.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측정 지표 설정

1)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하여 주요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⁹⁾ 주요 내부 이해관계자란 ‘한살림연합 이사회’와 ‘한살림사업연합 이사회’ 그리고 ‘생협사업추진회의’ 참여자인 조합원 대표와 실무책임자 등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1%('매우 필요하다' 35%, '필요하다' 56%)에 달했다. 조합원대표그룹(4.33점)과 실무그룹(4.17점) 모두 지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평균 4.25점)을 보였다.

<그림2.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표4.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과 인식 정도(5점 만점, 평균값)>

구분	필요성	인식 정도
평균	4.25	3.22
조합원대표	4.33	3.53
실무그룹	4.18	2.94

9)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설문을 진행하였다.

- 설문대상: 한살림연합 이사회, 한살림사업연합 이사회, 생협사업추진회의 참여자(실무책임자, 실무자 일부 포함) 81명(중복인 제외). 기간은 2022년 2월 4일~2월 15일, 응답자는 32명(조합원대표 15명, 실무그룹 17명(실무책임자 15명, 실무자 2명))으로 응답률 39%이었다.

즉, 주요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또는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1점(5점 만점)으로 높지 않았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 가량(‘매우 잘 알고 있음’ 6%, ‘잘 알고 있음’ 25%)으로 인식률은 다소 낮은 편으로 보인다. 이에 지표와 관련 내용을 주요 이해관계자와 내부 구성원에게 상세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 지표 측정의 우선순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많은 측정 요소(지표) 가운데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에 측정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요성, 탁월성,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요성이란 한살림이 운동과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의미하며, 탁월성은 한살림이 다른 조직과 비교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뜻한다. 우선순위는 사회적 가치 지표 설정 시 우선적으로 측정해야 할 지표를 각각 의미한다.

한살림 주요 이해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과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꼽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과 ‘윤리적 생산과 유통’은 한살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생소하나(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와 연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 원칙인 ‘민주적 운영’과 ‘지역경제(사회)공헌’은 중요한 지표지만, 한살림에서는 탁월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노동과 관련된 ‘안전한 근로생활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등은 다른 지표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탁월성이 다소 낮았다. ‘저개발국과의 국제적 연대 협력’은 중요성과 탁월성, 우선순위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5. 지표의 중요성, 탁월성,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응답>

(5점 만점, 평균값)

지표	중요성	탁월성	우선순위
① 인권보호	4.56	3.91	4.00
②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4.31	3.25	3.84
③ 노동권, 양질의 일자리	4.09	3.06	3.91

④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4.84	4.19	4.75
⑤ 지역경제 공헌	4.41	3.13	4.03
⑥ 윤리적 생산과 유통	4.72	4.25	4.47
⑦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4.59	3.78	4.47
⑧ 민주적 의사결정	4.44	3.44	4.13
⑨ 저개발국 연대협력	3.63	3.03	3.19

주요 이해관계자 응답 중 평균값이 높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주요 지표로 꼽았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에는 한살림에서 강조하는 ‘생소하나(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와 생명을 살리는 농업과 친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연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 시 강조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 또한 중요한 지표로 도출되었다.

<표6. 주요 이해관계자가 설정한 지표 우선순위>

순위	우선순위	중요성	탁월성
1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생산자-소비자 협동	윤리적 생산과 유통
2	윤리적 생산과 유통	윤리적 생산과 유통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3	환경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인권보호
4	민주적 의사결정	인권보호	환경의 지속가능성
5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3)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설정

연구진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를 바탕으로 한살림 중점사업 목표와 내부 설문조사를 비교, 검토하였다.¹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의 지표를 ‘핵심지표’와

‘전략지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네 가지 지표를 **핵심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네 가지 지표는 ①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② **생산 안정성 확보** ③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④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또한 ①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와 ② **지역 사회 참여와 연대**는 **전략지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지표를 측정·관리하고자 한다.¹¹⁾ 또 전략지표는 핵심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단계 한살림이 해결해야 할 당면 전략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전략지표는 ①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②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로 선정했다.

전략지표를 설정한 이유로서 ‘지역 사회 참여와 연대’의 경우, 지표 설정 시 우선순위 상단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2021년 <한살림전략수립프로젝트>의 조합원활동 의제로 ‘돌봄’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한살림 활동이 지역 사회의 돌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검토하면, 협동조합 원칙 중 하나인 지역 사회의 기여와 연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범위를 넓혀 지구촌 생명살림운동 등 국제연대에 관련한 참여 현황도 함께 검토하여 한살림의 지역 사회 참여와 연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권 및 양질의 일자리’는 UN 글로벌 콤팩트와 ISO26000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준 가이드라인¹²⁾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 중 하나이다. 한살림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약 2,500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다. 직원은 협동조합 운영의 주요 주체지만, 주요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살림 내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지속가능성 지표로 본 한살림운동> (2017)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한살림에서는 노동 관련 현황과 관련한 사회적 통용 지표가 아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일하는 이들의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는 한살림의 사명과 후속세대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전략지표로 설정하였다.

<표7.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여섯가지 지표>

유형	구분	지표	설정 근거
핵심지표1	밥상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협동으로 만드는 밥상)	· <한살림을 시작하면서>(1987)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 2020년 조합원 설문조사

10) 한살림 중점사업 목표와 내부 설문조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한살림연합 총회자료집 (2021, 2022), 한살림사업연합 총회자료집(2021, 2022), <2018 조합원 의식조사>(2018), “COVID-19와 한살림의 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2020.8), “2020년 한살림 사업계획 수립 설문조사”(2021.11).

11) 연구진 내부회의를 거쳐(2022.8) 지표와 관련된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은 ‘생산 안정성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로, ‘지역경제공헌’은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로 표현하였다.

1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핵심지표2	농업살림	생산 안정성 확보	· <한살림을 시작하면서>(1987)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 2020년 조합원 설문조사
핵심지표3	생명살림	환경의 지속가능성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 2020년 조합원 설문조사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체 결의 ① 공동실천 의제 채택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2020.10 연합 이사회) ② 전체 조직 사업계획 반영(2021)
핵심지표4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 연합, 사업연합 공동 활동실무회의 개설(2021) · 조합원 리더십 및 조합원 성장체계 마련(2021)
전략지표1	생명살림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 한살림운동 주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과제로 인식(2022)
전략지표2	지역살림	지역 사회 참여와 연대	· 한살림운동 새로운 30년 비전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 · 한살림전략수립프로젝트, 조합원 활동의제로 ‘돌봄’ 선정(2021) · 2022년 연합 핵심목표 - 돌봄운동 활성화 지원

이상과 같은 사전 의견수렴과 본 보고서 연구진들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제안된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는 6개의 지표 유형과 26개 지표 항목, 그리고 56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아래 표의 비고란에는 현재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집계 상황을 표시해두었다. 집계가 되고 있지 않는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지표를 제안하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표8.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의 지표 유형과 항목, 세부지표>

지표 유형	지표 항목	세부지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핵심지표1)	1.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는 의사결정구조	1) 연합회/사업연합의 의사결정구조	
		2) 생산자-소비자 연대를 통한 물품 가격 결정	
	2. 소비 현황	1) 조합원수 증감	
		2) 물품공급액 증감	
		3) 조합원 연령별 이용액 증감	
		4) 외부유통 증감	
	3. 생산자-소비자 교류	1)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4. 사회적 의제 제안과 참여	1) 생소하나의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생산 안정성 확보 (핵심지표2)	1. 생산 현황	1) 생산공동체 수, 공급액 증감
			2) 생산농가 연령과 청년생산자 비율
			3) 생산농가의 수취액 증감
		2. 생산의 안정성	1) 생산농가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안정기금, 가격안정기금
2) 전년 대비 생산면적 증가			
3)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참여인증 생산			
3.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1) 한살림 참여인증 제도	
4. 물품안정성 관리		1) 잔류농사검사 등 안정성 검사	
5. 사회적 의제 제안 참여		1)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핵심지표3)		1. 기후위기 대응	1) 먹을거리운동, 햇빛발전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1) 유리병, 공급박스 등 재사용율
		2. 자원재활용	2) 포장재 개선
	3)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확대		
	4) 홍보 및 사무공간 자원 절약		
	1) 토박이 씨앗살림(생산면적, 공급량)		
	3. 생물다양성 확보	1) 토박이 씨앗살림(생산면적, 공급량)	
	4. 사회적 의제 제안 참여	1)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핵심지표4)	1. 조합원의 거버넌스	1) 이사회, 대의원 등 조합원의 조직 운영 참여
			2) 의사결정 참여 과정의 민주성
			3) 이사회와 대의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만족도
			4) 각종 위원회를 통한 조합원 의견 수렴

	2. 조합원 활동 참여	1) 기초조직 참여
		2) 조합원 교육 제공과 참여
	3. 조합원 의견 수렴	1) 조합원 의견 처리 비율
		2) 세대별 조합원 필요에 부응하는 물품 개발과 공급
	3) 조합원 만족도	
	4. 조합원 참여의 다양성	1) 사회적 약자의 용이한 접근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전략지표1)	1. 일자리 창출	1) 각 부문별 고용 현황
		2) 여성 활동가 고용
		3) 사회적 약자 고용
	2.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1) 각 영역 정규직 고용
		2) 노사협의회 운영
		3) 생산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4) 최저/최고 임금 비율
		5) 고충처리제도
		6) 근무만족도
	3. 성비균등 근로조건	1) 여성 고용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2) 성별간 임금 격차 비율
	4. 교육 및 훈련제공	1) 직원 교육 제공
2) 교육 만족도		
5. 직원의 건강과 생활	1)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 (전략지표2)	1. 지역사회 연대 및 정책 참여	1) 지역사회와 연대 및 정책 참여
		1) 지역돌봄, 먹거리 나눔, 기부 등
	2. 지역사회 돌봄 참여	2) 행복기금
		1)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3.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여	2) 사회적경제 조직 협업	
	4. 지구촌 생명살림운동 참여	1) 조합원의 국제사회 참여(모금 등)

4) 지표 측정 주기 및 관리 주체

‘한살림 사회적 가치 보고서’ 발행 주기와 관련해서는 3년을 주기로 하자는 의견(37.5%)이 가장 많았다. 다만 매년 발행(31.3%)과 2년 주기로 발행(31.3%)을 원하는 비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행 주기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살림연합 이사회 내에 별도의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사회적 가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1%(매우 필요함 10%, 필요함 31%)이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5%로 낮은 편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40%를 차지하지만, 별도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지표의 관리 주체는 모심과살림연구소가 적절하다는 의견(59.4%)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설)사회적 가치위원회(21.9%), 한살림연합 내 위원회(12.5%) 순이었다.

5) 향후 추가 논의 사항

주요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제안한 추가 의견은 아래 표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제안 의견을 키워드로 분류하고 이미 제안된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확인을 거쳐 코멘트를 추가하였다. 제안 내용 중 80% 가량은 이미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 가량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9.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 제안 의견>

추가 제안 의견	키워드	연구진 코멘트
지역의제 선도 및 연대	지역 연대	각 지표의 사회의제 참여와 제안에서 포함
녹색금융, 사회적금융 등 기후위기, 탄소절감 관련 지표	기후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포함
내부구성원 신뢰, 만족도, 행복감	구성원 만족도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지표에 포함
노동에 참여하는 영역의 만족도	구성원 만족도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지표에 포함
살림꾼의 개인 성장 만족도와 협력 및 타인 성장 기여도	구성원 만족도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지표에 포함
참여하는 구성원 간 협동	구성원 협동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민주적 의사결정 지표에 포함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구조)의 민주성, 자치역량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지표에 포함
활동영역별 동일한 처우 개선	일자리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지표에 포함
한살림 생명살림의 가치	생명살림	핵심지표에 포괄적으로 포함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 측정	유기농업의 공익성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포함
농업지속성 위한 도농거래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지표에 포함
경영안정성	경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의 결과에서 확인 가능
사업의 성과	사업 성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의 결과에서 확인 가능
구성원 간 책임과 역할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조사 필요
혁신성과 지표	기타	세부내용 논의 필요
쉽과 몸 마음 돌봄	마음살림	세부내용 논의 필요
농촌돌봄	돌봄	세부내용 논의 필요
한살림 가치 전파, 공유	가치 확대	세부내용 논의 필요
연수원 건립	-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에 구성원 교육 및 훈련에 포함되나 연수원 건립은 사업 진행 사항임

내부 논의가 필요한 제안 의견은 신뢰도 조사와 임팩트 측정이었다. 제안 의견 중 ‘구성원 간 책임과 역할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은 조직 내부 구성원 간 신뢰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한살림 가치 전파와 공유, 혁신성과 지표 등은 단순한 수치(output) 변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생산물인 결과(outcome)를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추가되어야한다. 이외에 마음살림과 농촌돌봄은 측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03

2022년

한살림 사회적 가치 측정

한살림 현황

핵심지표

전략지표

1. 핵심지표1 -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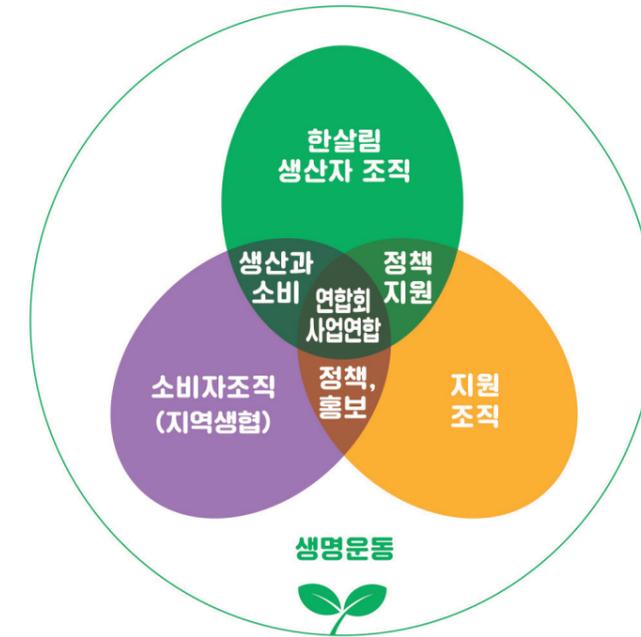
핵심지표1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살림은 창립 초기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이 개념은 '생소하나' 또는 '생소협동'이라는 줄임말로 한살림을 대표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생소하나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은 단편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증감과 매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 한살림의 물품 가격 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깊은 관계와 연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표에서는 단편적인 수치 외 의사결정 구조도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를 나타냈다.

지표항목1.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는 의사결정구조

세부지표1. 한살림연합과 한살림사업연합의 의사결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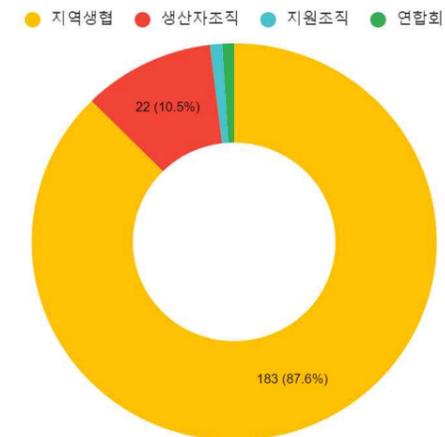
한살림은 소비자 조직과 생산자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물품 가격, 물품 정책, 생산지와 생산지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갖추고 있다. 한살림연합은 지역생협(23개 조직)과 생산자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권역별 조직 포함 20개 조직), 지원조직(연구소 등 5개 조직)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살림연합 대의원 200여 명 중 22명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은 지역생협, 한살림연합과 함께 한살림사업연합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살림사업연합은 지분율의 정도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지역생협과 생산자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협동조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림4.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결정하는 한살림 의사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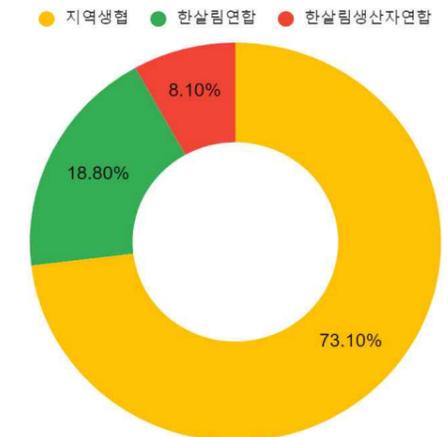


<그림5. 한살림연합과 사업연합 내 구성>

한살림연합 대의원 구성



한살림사업연합 지분율



☑ 기준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 전반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한살림연합 이사회		○
한살림연합 대의원		○
한살림사업연합 주주		○

※ 기준표의 ○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음, △는 보통수준으로 진행됨, ×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부지표2. 생산자-소비자 연대를 통한 물품 가격 결정

“넉넉히 소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믿고 짓겠습니다.” - 생산자
 “좋은 쌀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믿고 먹겠습니다” - 소비자

한살림 농산물은 생산-유통이 실행되지 않은 1년 전에 소비자와 생산자,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해 생산량과 생산조건, 가격이 결정된다. 생산자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운 농업 환경, 농가 소득 감소, 생산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살림의 생산과 가격 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의 책임소비는 생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이다. 한살림에서는 1989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한살림의 쌀값 결정 방식은 기후위기와 농가 수 감소, 정부의 농업 정책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서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진행되는 ‘쌀값결정회의’에서는 소비자는 생산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생산자 또한 소비자에게 감사하며 직면한 생산 환경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표10. 쌀 가격 비교>

기준: 40kg, 단위: 원, 평균가격

구분	한살림(유기배벼)	시장도매가격(등급 上)	친환경농산물(유기백미)
2021	90,000	114,266	146,065
2020	86,000	99,466	133,830

참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데이터

한국의 쌀 가격은 2000년대부터 공급과잉과 소비량 감소가 맞물려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는 생산자의 삶과 연동된다. 한살림에서는 생산자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살림 쌀 소비 감소 예상분 400t을 소비자 조합원이 250t을, 생산자들 또한 150t을 책임소비하기로 결의하였다.¹⁴⁾ 한살림에서는 쌀 외에 잡곡 등 대부분의 농산물을 소비자-생산자 간 대화와 협력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격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고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구조로 점차 전환하는 방식을 구축 중이다.

☑ 기준

한살림 농산물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벼생산관련회의 등 상생구조 구축		○
농산물위원회 등 조합원의 생산 현황 파악과 의견 공유 구조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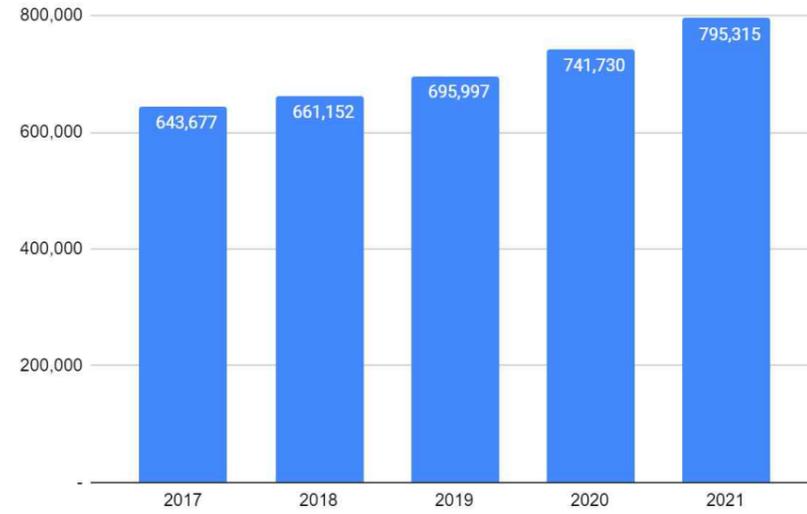
지표항목2. 소비 현황

세부지표1. 조합원 수와 물품공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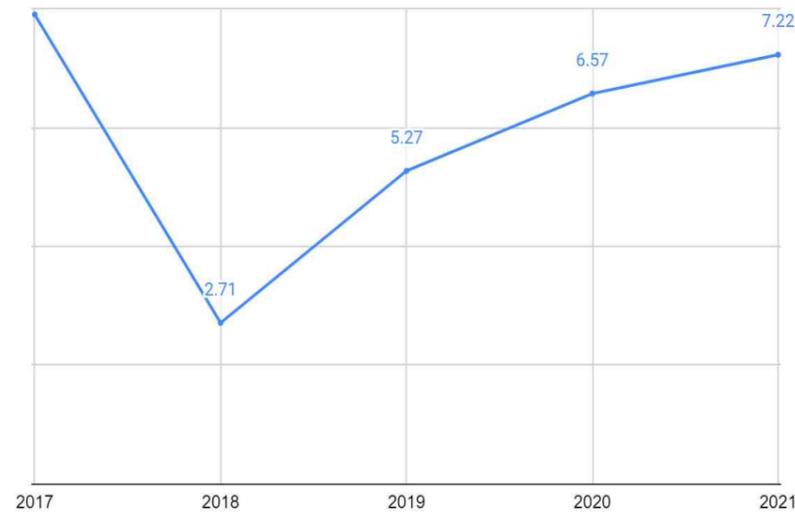
2021년 하반기 기준, 조합원은 총 795,315세대이다. 전년 대비 조합원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점점 증가율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년대비 조합원 수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였으나 2017년부터 7.9%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증가율이 2.7%에 그쳤다. 2019년부터 차츰 증가하여 2021년에는 7.2%의 증가율을 회복한 상태이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과 같은 조합원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조합원 증대라는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14) 2022년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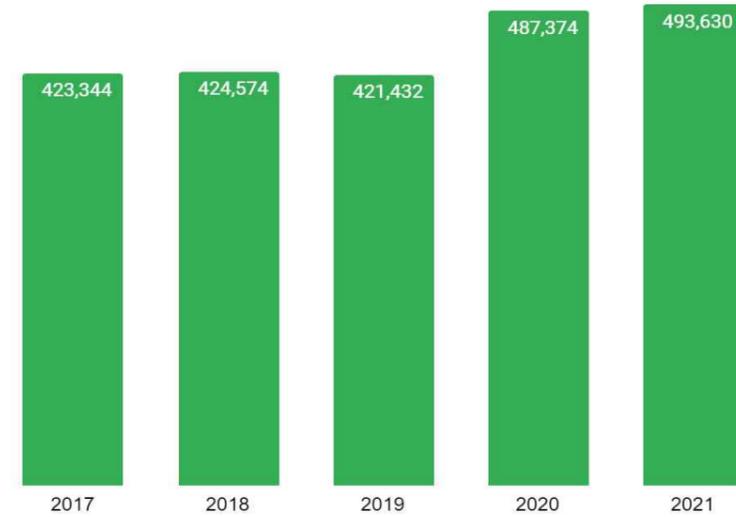
<그림6. 전체 조합원 수(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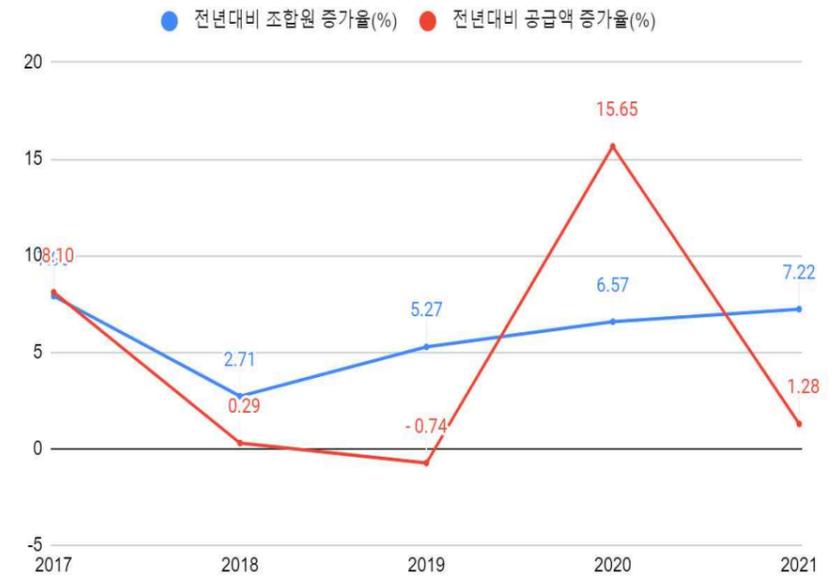
<그림7. 전년 대비 조합원 수 증감률(%)>



<그림8. 물품이용액(백만 원)>



<그림9. 전년대비 조합원과 공급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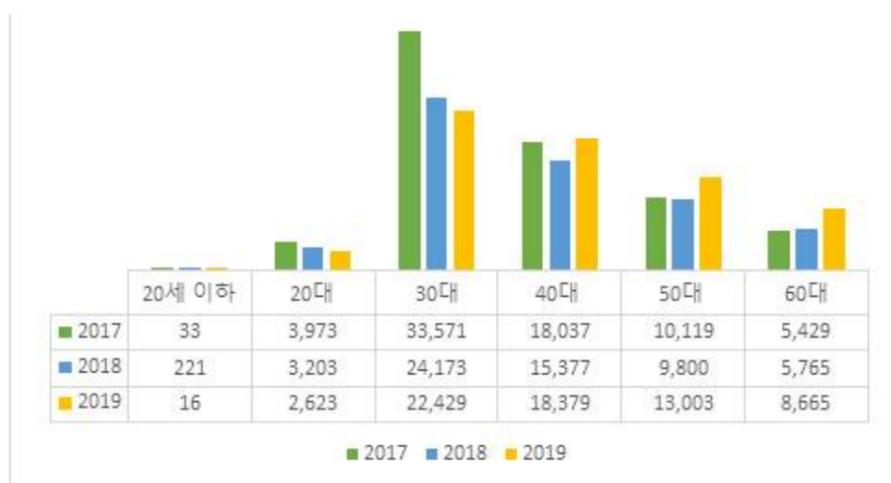
2021년 물품이용액은 약 4,936억으로 2020년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낮아진 상황이다. 2020년 초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상황이 강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외식이 감소하는 등 사회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물품 이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21년에는 전년대비 공급액 증가율이 1.28%에 그쳤다. 전년대비 조합원 증가율과 비교시 공급액 증가율은 낮은 상태로 조합원의 지속적인 물품 구입 및 참여 촉진이 필요해 보인다.

세부지표2. 조합원 연령별 이용액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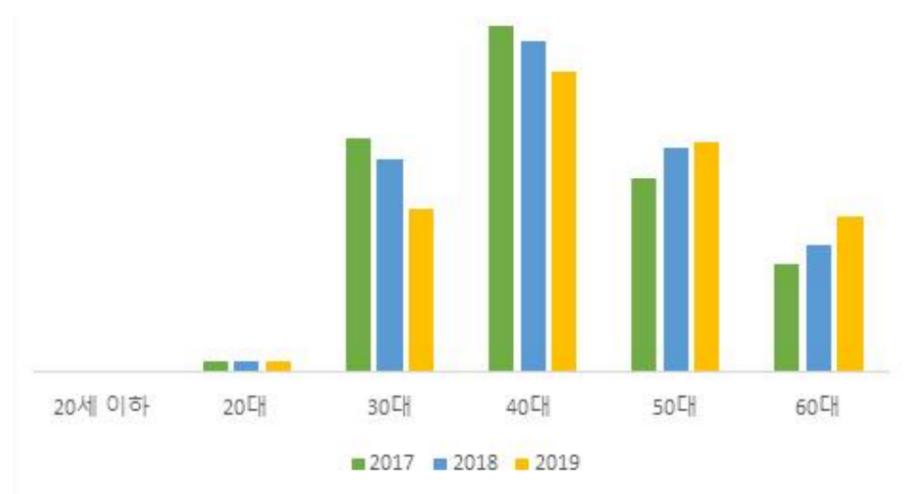
한살림운동과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살림 조합원 연령을 살펴보면 20~30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50대는 증가하고 있어 조합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대별 이용금액 또한 30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한살림연합 대의원 총회에 보고되던 조합원 세대별 데이터가 2020년부터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살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젊은 세대의 가입과 이용이 필수적이며, 이 세대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10. 세대별 조합원 가입수(명)>



<그림11. 세대별 이용금액(천원)>



<표11. 연령별 물품 이용금액 추이(2017~2019)>

단위: 원

구분	2017	2018	2019
20대 이하	7700만	5500만	1400만
20대	8억 7000만	8억 4000만	7억 6000만
30대	180억	160억	120억
40대	260억	250억	230억
50대	140억	170억	170억
60대 이상	82억	97억	110억

세부지표3. 외부유통 증감

한살림은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공공급식과 임산부꾸러미사업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살림 매장을 넘어선 물품공급을 위하여 (주)한살림사업연합을 설립하여 외부유통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살림의 외부유통은 2020년에 약 23억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417%가 증가한 약 122억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목표액이었던 110억을 초과달성하였다. 특히 친환경 임산부꾸러미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공급 증가율이 85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한살림에서는 지역별 임산부꾸러미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여 조합원 가입으로 연계하고 있다.

<표12. 한살림 외부 유통 공급액 추이>

	2020	2021	목표 달성
외부유통 실적(천원)	2,372,902	12,278,096	○
전년대비 증가율(%)		417.4	

☑ 기준

한살림 매출과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물품이용액의 증가율 상승	△

조합원 가입의 증가율 상승	△
조합원 연령대의 분포는 고른가?	
다양한 연령대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젊은 세대 조합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가?	×
세상에 밥이 되는 한살림운동이 추진되고 있는가?	
한살림 매장 외 지역 사회에 물품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가?	○

지표항목3. 생산자-소비자 교류

세부지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소통,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라는 실천을 의미한다. 한살림에서는 이를 위하여 생산지 행사, 생산지 방문, 일손돕기, 생소간담회, 생산지 홍보와 매장체험, 생산지 탐방 등을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다. 한살림의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는 2020년 COVID-19로 인해 양적으로는 줄어든 상태이다. 2019년에 1,337회, 12,266명이 생산지를 방문하거나 생산자를 대면한 반면, COVID-19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수는 1/3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대면 횟수를 늘려서 차츰 도농교류가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교류가 감소한 것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12.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도농교류) 횟수와 참여 인원>



과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와 관련된 자료는 진행 횟수와 참여 인원, 즉 정량적인 기록이 중심이다. 숫자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 생산자 간 어떤 소통과 교류가 있었는지 정성적인 기록과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생산지의 일손부족 문제를 소비자 조직과 생산자 조직의 조직적인 일손돕기로 상호연대할 수 있을지 모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대면 상황 하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소비자-생산자의 교류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제공되는가?

○

지표항목4.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세부지표. 생소하나15)의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기재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먹거리 3대 사업의 2022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한살림에서는 실

15) 생산과 소비는 하나

무기회의를 구성하여 기재부의 먹거리 3대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조합원과 대중에 알렸다. 또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8월부터 11월까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살림 등 관련 단체의 공동 노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먹거리 3대 예산(총 319억)이 2021년 수준으로 복원되어 통과되었다.

<표13. 먹거리 사회정책 의제 참여>

이슈	내용	참여 주체	대상	정책 포지션
먹거리연대	먹거리 관련 3대사업(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기재부(22년)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협의회 구성, 예산 복구 성공	한살림연합	기재부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삭감 반대

☑ 기준

한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참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한살림 외 조직과 연대하여 정책 제언에 참여하고 있는가?	○

2. 핵심지표2 - 생산 안정성 확보

생산 안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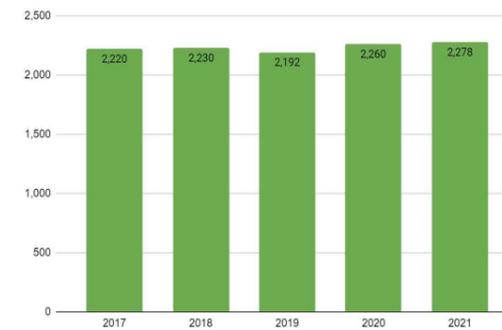
핵심지표2는 생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30년 이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생산자가 위치한다. 생산공동체의 현황과 공급액, 생산자 증대는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생산과 생산자의 현황, 생산방식 등을 검토하고, 소비자 조합원과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지표를 살펴보았다.

지표항목1.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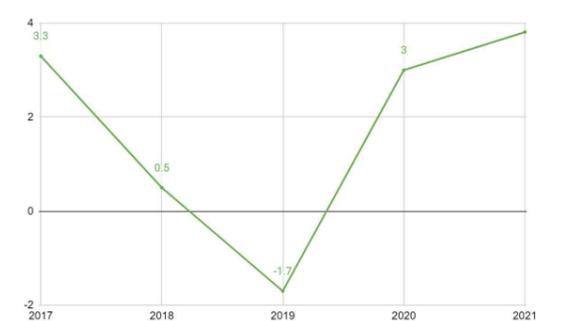
세부지표1. 생산공동체(생산자, 공동체)와 공급액 증감

한살림 생산농가는 2019년을 제외하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과 비교시 생산농가 수가 3.3% 증가에서 -1.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폭 증가하여 2021년 12월 기준 총 2,278세대가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에 소속된 생산자공동체는 2021년 기준 127개이며 매년 2~3개씩 증가하고 있다.

<그림13. 생산농가(세대)>



<그림14. 전년 대비 생산자 회원수 증감율(%)>



☑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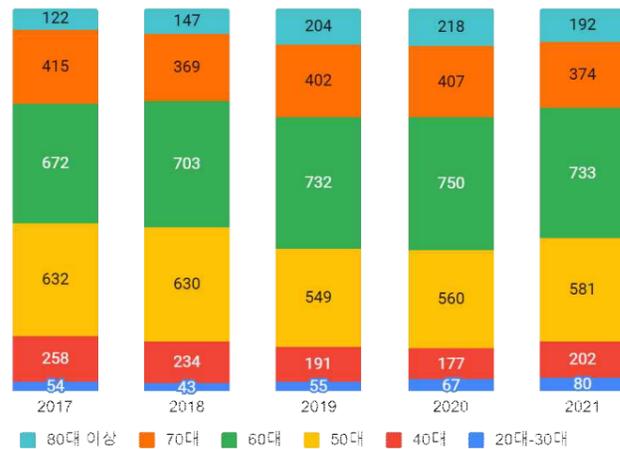
한살림 생산자 현황	
한살림 생산공동체 증가율 상승	△

세부지표2. 생산농가 연령과 청년생산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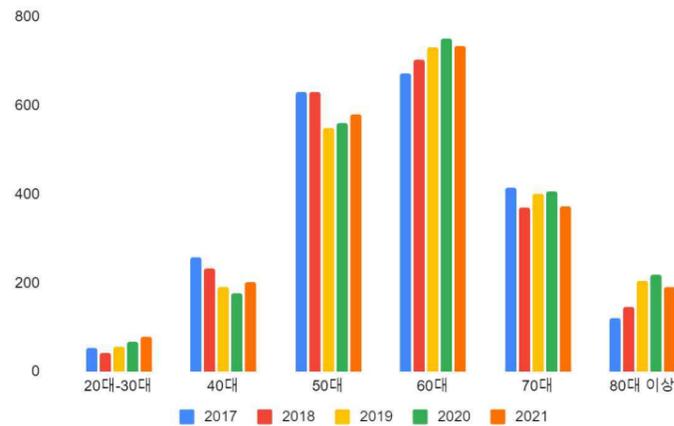
생산자공동체와 생산농가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자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생산자 평균 연령은 2017년에 61.4세에서 2020년에 63.2세로 높아졌으나, 2021년에 62.3세로 소폭 낮아졌다. 이는 2021년에 고령화로 인해 생산자의 은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산자 중 20~30대는 3%에 그치며, 40대도 17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살림과 밥상살림은 농업살림의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한다. 농업살림이 지속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생산자의 확대와 청년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림15. 생산공동체 연령대(명)>



<그림16. 생산자 세대별 추이(명)>



<표14. 생산자 연령 비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대	0.3	0.04	0.4	0.64	0.9
30대	2.2	2.0	2.0	2.43	2.8
40대	12	10.4	10.8	8.12	9.3
50대	29.4	28.2	29.1	25.7	26.9
60대	31.2	31.5	32.5	34.42	33.9
70대	19.3	16.5	18.3	18.68	17.3
80대 이상	5.6	6.5	6.8	10	8.8

과제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2022년 총회자료집에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청년·후계농·귀농인 육성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산공동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농민의 고령화는 한살림 전체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살림 내외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살림의 생산자 지원 정책(2021년 기준)

- ✓ 귀농인 양성을 위한 교육농장지원 운영비 지원(충북, 경기, 경북, 충남, 제주)
- ✓ 한살림 살림꾼 귀농정착 지원사업(생활안정지원금 약 2년 지원)
- ✓ 한살림 청년귀농 정착지원금 지원(40대 이하 귀농자에게 임대료, 농자재비 지원)
- ✓ 청년생산자 기본소득(월급) 타당성 조사 진행 예정(2022년 상반기 진행) 등

☑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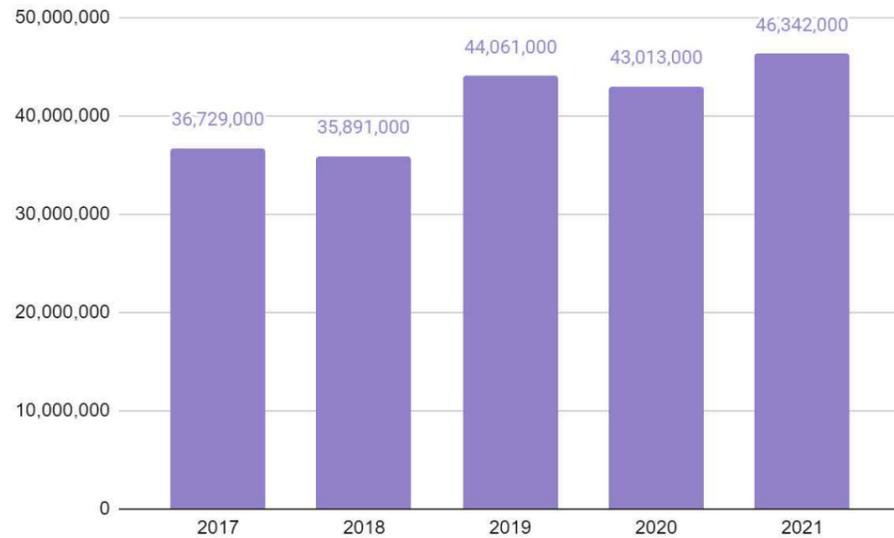
한살림 생산자 연령대 분포는 고른가?	
다양한 연령대의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
젊은 생산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가?	×

세부지표3. 생산농가의 수취액 증감

한살림 생산농가가 취득한 소득인 수취액은 2020년에 소폭 하락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농가당 수취액 증가율도 2020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21년에는 7%가 증가하였다.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생산자의 생활이 지속가능해야, 생산 또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당 수취액의 증가는 생산과 생산자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농가당 수취액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자의 수입과 지속가능성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살림의 활동과 사업이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면, 생산자들의 기대 순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지만 사회 일반과 비교하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그림17. 농가당 수취액(원)>



<표15. 농가당 수취액(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농가당 수취액(원)	36,729,000	35,891,000	44,061,000	43,013,000	46,342,000

☑ 기준

한살림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은 생활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농가의 수취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
한살림 생산자의 생활환경, 소득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
생산자의 소득 외 건강과 안전,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조사, 정책 등이 진행되고 있는가?	△

지표항목2. 생산의 안정성

세부지표1. 생산농가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안정기금, 가격안정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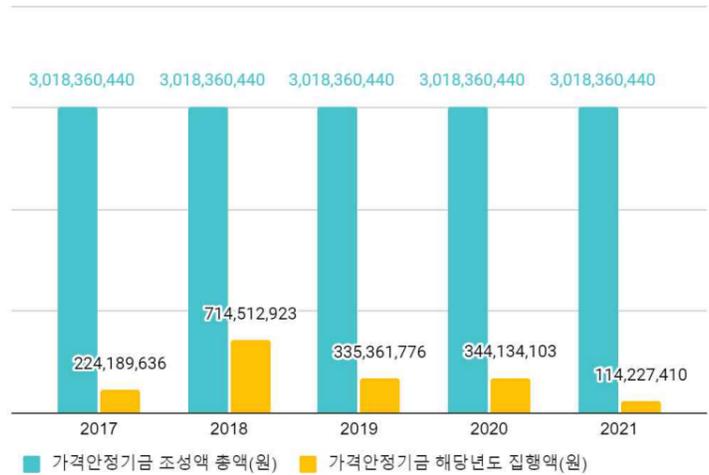
한살림에서는 생산농가 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소비자조직(회원생협)과 생산조직이 각각 물품이용액의 0.1%를 적립하여 재해 등으로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상기후로 작물을 출하하지 못한 농가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약 8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 조성된 기금은 약 8억 원이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49억을 조성하여 누적집행액 41억원을 달성하고 있다.

가격안정기금은 시장가격 등락을 고려하여 구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완충역할을 위해 2014년에 조성되었다. 생산안정기금과 같은 비율로 적립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조성된 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노지감귤, 중과, 절임배추 등의 적체물품과 원물수급을 위해 약 1억 원의 기금이 활용되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약 30억원을 조성하여 그 중 총 25억원을 집행하였다.

<그림18. 생산안정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원)>



<그림19. 가격안정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원)>



☑ 기준

한살림은 생산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가?	
생산농가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조성·집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생산 가격 안정화를 대비한 자금을 조성·집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세부지표2. 전년 대비 생산면적 증가(평, 증가율 %)

한살림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생활을 위해 생산물의 가격과 양을 미리 책정하고 있다. 한살림은 2020년을 제외하면 경지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면적은 2.2%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농가당 수취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16. 한살림 생산면적 추이(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면적(가공원료 포함, 평)	13,360,000	13,610,000	14,060,000	13,870,000	14,690,000
전년대비 생산면적 증감(평)	▲300,000	▲250,000	▲450,000	▼190,000	▲820,000
전년대비 생산면적 증가율(%)	2.3	2.3	3.3	-1.3	5.9

세부지표3.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생산량 증가(총량, 재배면적)

한살림에서는 농산물 대부분(70% 이상)을 한살림 생산자와 계약 재배를 통해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다. 농산물은 한살림의 생산 기준에 따라 토양, 씨앗, 생산 방식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60% 이상이 유기농이며, 무농약을 포함하며 약 90%가 친환경농산물이다. 한살림의 유기농, 무농약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살림의 자체 기준인 자주인증도 시작 단계라 많지 않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20. 각 항목별 계약 생산량(톤)>



<그림21. 각 항목별 계약 재배면적(평)>



☑ 기준

한살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가? ○

지표항목3.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세부지표. 한살림 참여인증 제도

한살림은 정부의 친환경인증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토양, 씨앗, 농법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는 ‘한살림참여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2001년부터 결과를 증시하는 친환경인증제가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으로 인증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고민을 시작했다.

2004년 한살림 내부 정책토론회를 거쳐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에 기반한 자체 인증체계와 정부 인증제도를 부분적으로 결합하기로 논의하였다.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주관리, 자주점검 등이 진행되었다. 2020년부터는 ‘한살림참여인증’으로 공식화하여 시행 중이며 2021년 기준 52개 생산공동체와 780개 농가가 참여인증제도에 참여 중이다. 자주점검단에서 확인한 사항은 참여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를 거친 후 결정되고 있다. COVID-19로 자주점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자주점검을 통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표17. 한살림 참여인증제도 시행 상황(2019~2022)>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생산공동체 방문, 한살림만의 인증제도 진행·유지·발전시키는 한살림 자주점검단의 활동			
	2019	2020	2021
참여 생산공동체(개)	17	29	52
필지 점검 진행(회)	35	107	136
자주점검 참여인원	509	769	1,046
소비자 점검원	18	27	47

자주점검원이란?

생산자와 실무자와 함께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소비자 조합원을 일컫는다. 자주점검원의 자격 조건은 ① 1년 이상 임원, 위원, 활동가 등 조합원 활동 경력 ② 한국 농업 현실과 한살림 생산공동체와 물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이 ③ 지역생협의 추천 ④ 이전 자주인증 관련 활동 경험자 등이다.

☑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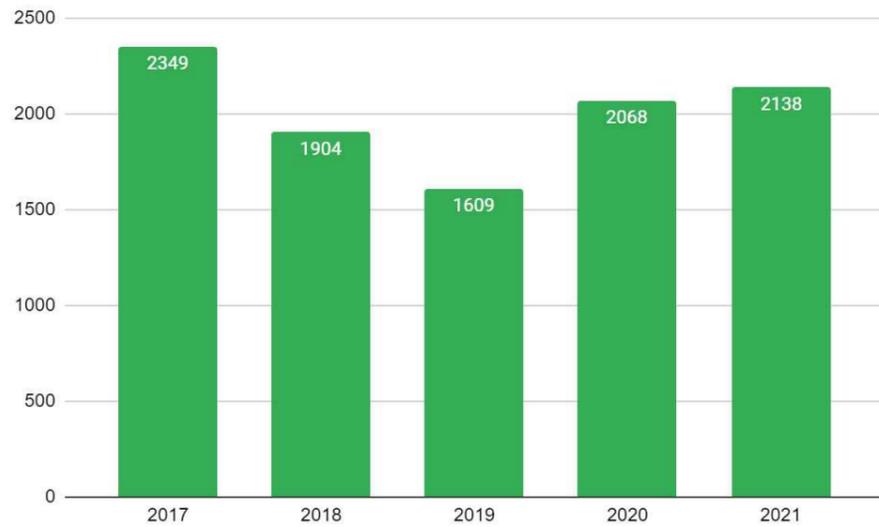
농산물의 자율적 생산과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가?	○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의 공동 참여가 진행되고 있는가?	○

지표항목4. 물품안전성 관리

세부지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

한살림에서는 잔류농약, 항생제, 방사능, 중금속, GMO 등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 및 유통기한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에는 지역생산조직의 안전성 관리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도출 및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정리할 계획이다.

<그림22. 한살림 물품 안전성 관련 검사 총 횟수(회)>



☑ 기준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농약, 항생제, 방사능 등 기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
물품 안전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

지표항목5.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세부지표. 농업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한살림은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협연합회와 생산자연연합회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외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활동 중이다.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한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을 촉구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운동과 GMO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18.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 상황>

이슈	내용	참여 주체	대상	정책 포지션
친환경농업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한살림연합	농림축산식품부	독단적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규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육성계획 촉구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	한살림연합 조합원	국회 청와대	농민기본소득 지지
GMO	GMO반대운동 (몬산토-GMO반대온라인 시민행진)	한살림연합	산업통상자원부	GMO규제 완화 개정안 반대
GMO	GMO 관련 4대 요구 발표 (완전표시제 시행, 미승인 LMO 관리, 유전자가위 기술 GMO명시, 학교급식GMO퇴출)	한살림연합	산업통상자원부	GMO 안전표시제 지지

☑ 기준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친환경농가를 위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
농민단체 및 생협과 연대하고 있는가?	○
조합원 및 시민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가?	○

3. 핵심지표3 -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핵심지표3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자원재순환, 포장재 개선, 생물다양성 확보 현황을 검토하였다. 한살림은 2021년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 공동실천의제'를 채택했다. 또한 한살림연합 대의원은 2021년에 "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여 조직 전체가 기후위기대응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한살림연합에서는 기후대응팀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살림 실천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지표항목1. 기후위기 대응

세부지표. 먹을거리운동, 햇빛발전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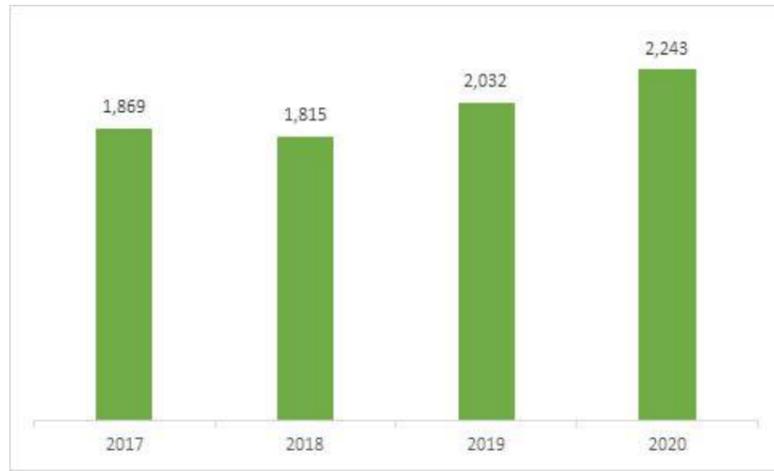
한살림은 햇빛발전소 설립,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남음제로 캠페인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햇빛발전소 설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7년 258톤에서 2021년 58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한살림연합 내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여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¹⁶⁾ 한살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보고서>(2021년 5월) 등을 발간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림23. 온실가스 총 감축량(톤)>

<표19. 온실가스 총 감축량(톤) 추이(2017~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목표
가까운 먹을거리운동	1,515	1,444	1,474	1,640	미집계	설정 필요
태양광(햇빛발전소) 건립	258	264	448	478	580	설정 필요
물류센터, 사무공간 에너지 감축	2021년 계획으로 측정 필요					

16) 측정 기준이 된 202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기관에 의한 온실가스 측정 검증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과제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산법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재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2021년 데이터 중 '가까운 먹을거리운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보완이 필요하며, 2021년 계획 중 하나인 물류센터와 사무공간 에너지 감축량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 공급차량의 전기차 전환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남음제로 캠페인 등의 보다 구체적인 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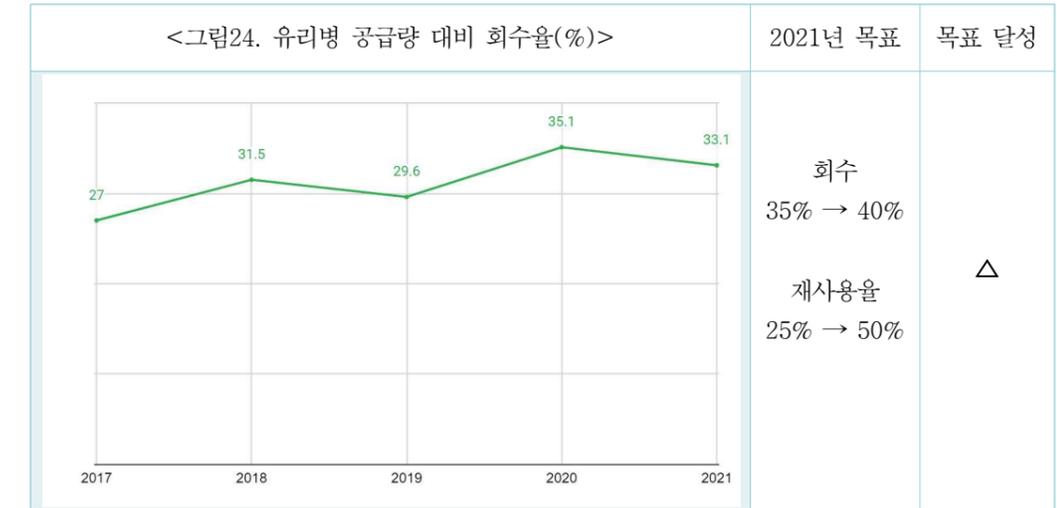
기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행이 추진되고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량이 측정되고 있는가?	○
외부 기관이 온실가스 측정을 검토하고 있는가?	△(추진예정)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가?	○
감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보고하고 있는가?	○

지표항목2. 자원 재활용

세부지표1. 유리병, 공급박스 등 재사용율(%)

한살림은 오랫동안 유리병 재사용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유리병 재사용운동 회수량과 공급량 대비 회수율이 다소 줄어들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리병 회수량 대비 재사용율은 2021년 목표가 50%였으나, 목표 달성 여부는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다.



<표20. 유리병 회수, 재사용율 추이(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리병 재사용운동 회수량 (병)	319,053	355,271	367,881	415,490	384,592
유리병 공급량 대비 회수율(%)	27.0	31.5	29.6	35.1	33.1
유리병 회수량 대비 재사용율(%)				25.0	-

과제

2021년 한살림연합 감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유리병 재사용운동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수치 비교를 통한 사업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과 비용,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유리병 재사용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살림은 창립 이후부터 공급상자(상온상자, 냉장상자 포함)를 재사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상온상자 재사용횟수는 약 3.8회로 목표했던 3.5회를 충족했으며, 2022년 목표를 4회로 설정하였다. 냉장상자의 경우 2020년보다 재사용 횟수는 증가(7.8회)했지만 목표였던 10회는 도달하지 못하여 2022년 목표는 8회로 하향조정하였다.

<표21. 공급상자 재이용 횟수 추이(2020~2022)>

	2020	2021	2021년 목표	목표 달성
상온상자 재사용횟수(회)	2.91	3.82	3.5	○
냉장상자 재사용횟수(회)	5.51	7.81	10	△

☑ 기준

자원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는가?	
유리병 재사용운동이 지속되고 있는가?	○
유리병 재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
공급상자 재활용횟수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

세부지표2. 포장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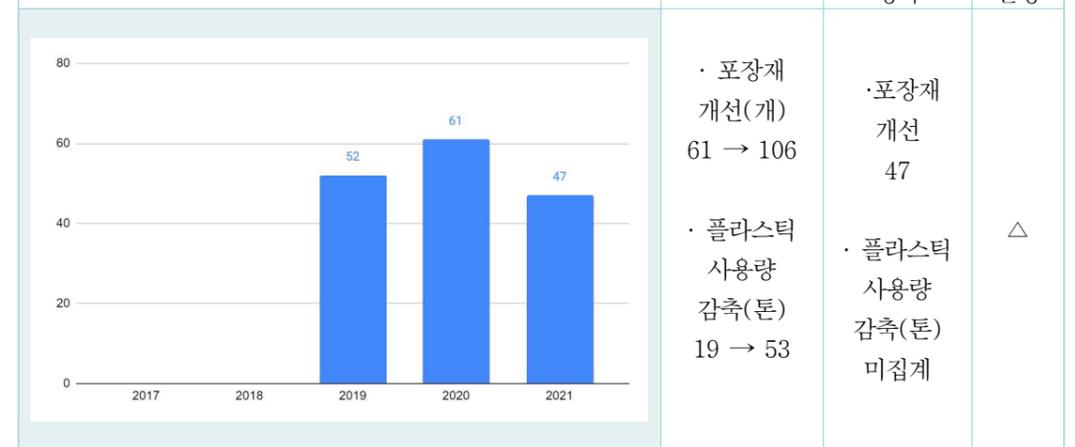
한살림에서는 <2018년 조합원 의식조사> 및 지속적인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 물품의 과다포장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COVID-19와 관련한 조합원 설문조사 시 조합원들은 지속적인 물품 이용을 위한 한살림의 노력 사항 중 1순위로 ‘물품포장재에 자원순환과 환경적 가치 담기’를 꼽았다.

2019년부터는 포장재의 기준을 3R(Reduce, Reuse, Recycle)을 설정하여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용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3R(Reduce, Reuse, Recycle)

- 감축(Reduce): 포장재 부피 최적화 등 불필요한 사용 줄이기
- 재사용(Reuse): 재사용병 구조보완 및 라벨 개선
- 재활용(Recycle): 물품포장재 재활용등급 향상

<그림25. 포장재 개선 품목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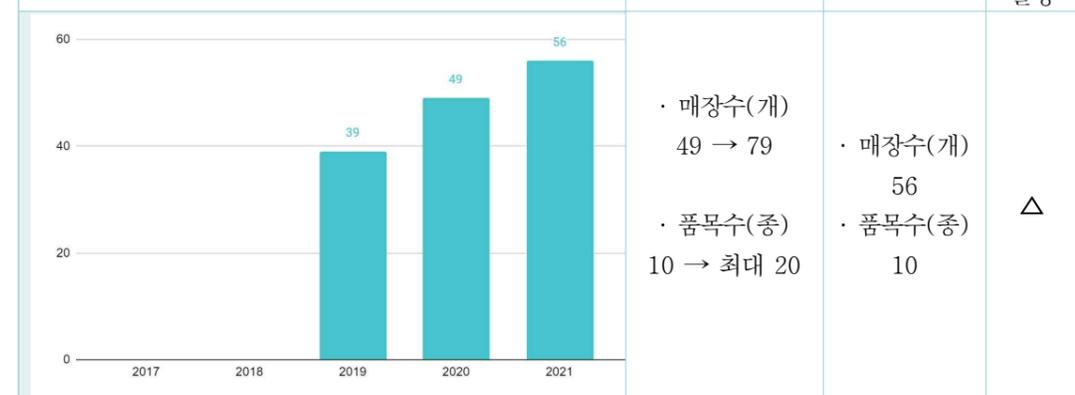


세부지표3.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확대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에 39개 매장에서 날개 판매를 시작하여 매년 약 10개 매장에서 취급을 늘려 2021년에는 총 56개 매장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매장 수를 49개에서 79개로 확대하는 것이 2021년 목표였지만, 56개에 그쳤다.

매장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포장재 없이 날개로 판매되는 물품을 이용하는 조합원 수는 2020년에는 28,20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19,840명으로 줄었다. 이는 COVID-19의 장기화로 추정되나 한살림 매출의 증대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이용액 또한 줄어들고 있어 그 원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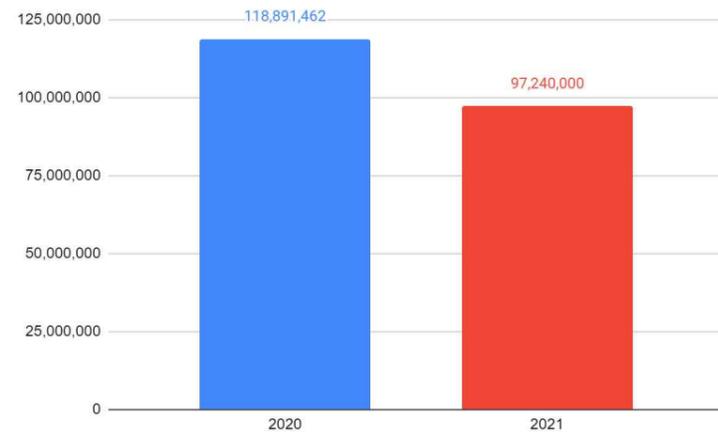
<그림26.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매장수(개)>



<그림27.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이용자(명)>



<그림28.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이용액(원)>



☑ 기준

포장재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포장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포장재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포장재 개선 목표를 달성했는가?	△
포장재 없는 매장과 품목수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

세부지표4. 홍보 및 사무공간 자원 절약

물품과 포장재 외에 홍보와 사무국에서도 자원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2020년부터 종이 인쇄물로 배포되던 소식지를 지면과 배포 부수를 축소하고, 그 대신 유튜브, SNS 등으로 홍보 수단을 전환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2년부터는 종이 소식지 발행을 일시 중단하고 이메일(주간 한살림)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 절약에 참여하고 있다.

<표22. 홍보 및 사무공간 자원 절약>

내용	2020	2021	목표 달성
소식지(지류) 지면 축소	36면에서 26면으로 축소	유지	○
소식지(지류) 배포부수 축소	15% 감소	유지	○
사무실 전력소비 절감 (연합, 생산자연협회)	2021년 계획	-	-
사무실 복사지 사용 절감(연합)	2021년 계획	-	-
물류센터, 물류 냉장설비 냉매 → 친환경 소재로 전환	-	-	-

과제

사무실 전력소비와 복사지 사용 절감, 냉장설비 냉매의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2021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에 따른 계획 이행과 목표 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준

홍보 및 사무공간 내 자원 절약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류 홍보자료를 줄이고 있는가?	○
사무실 자원절약 계획을 점검하고 측정하고 있는가?	×
냉장설비 냉매 등 친환경 소재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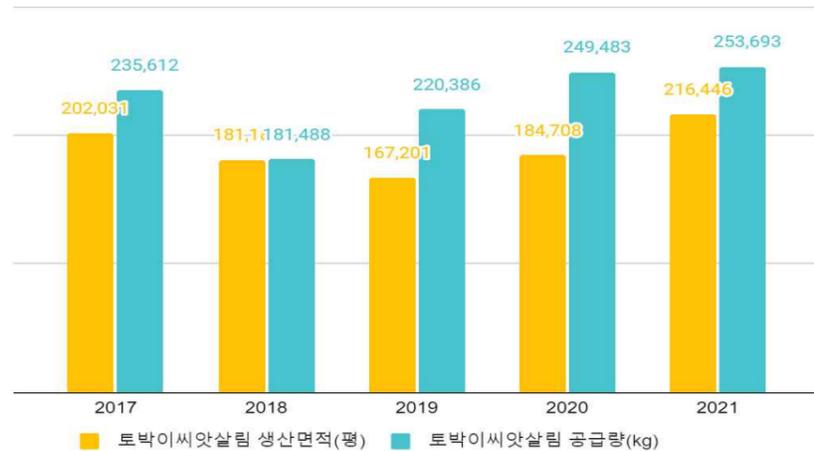
지표항목3. 생물다양성 확보

세부지표. 토박이 씨앗살림(생산면적, 공급량)

한살림에서는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추진하여 우리씨앗의 보존과 보급 그리고 채종과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씨앗을 보존하는 것은 밥상살림과 생명살림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자,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살림에서는 약 30개의 토박이씨앗을 보존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면적은 2021년에 약 21만 평이다. 2018년에 생산면적과 공급량이 다소 낮아졌지만, 2019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공급량은 약 25만kg, 공급액은 약 28억 원으로 2018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씨앗의 품목이 2015년에는 약 40개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 그 수가 줄어들었고, 공급량과 공급액도 2015년~2016년과 비교할 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박이씨앗을 지키기 위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조합원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토박이씨앗살림연구분과’를 신설하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위원회에서는 오랜 기간 매장과 조합원 모임 등을 통해 토박이씨앗의 의미와 물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29. 토박이씨앗 생산면적(평)과 공급량(kg)추이(2017~2021)>



☑ 기준

토박이씨앗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
--------------------------------	---

지표항목4.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안

세부지표.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

한살림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등 연대조직에 참여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에 근거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하여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탈핵대선연대>에 참여하여 탈핵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표23.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 상황>

이슈	내용	참여 주체	대상	정책 포지션
기후위기	영농형 태양광 사업 허용 법안 반대	한살림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국회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사업 반대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	조합원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기후위기 관련 기본법 지지
탈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조합원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탈핵	친원전 세력 비판 성명서 발표	한살림연합	대선 후보 각 정당	탈핵 지지
탈핵	정당한 탈핵정책 요구하는 탈핵대선연대 결성	한살림연합	대선 후보 각 정당	탈핵 지지

한살림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2021년 기준)

- ✓ 기후위기 관련 3년 단위 중간점검을 통한 목표·전략 수정
- ✓ 기후위기 대응 성과보고서 발간

☑ 기준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	
정책 등 애드보커시에 참여하고 있는가?	○
외부기관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가?	○
다양한 주제에 대응하고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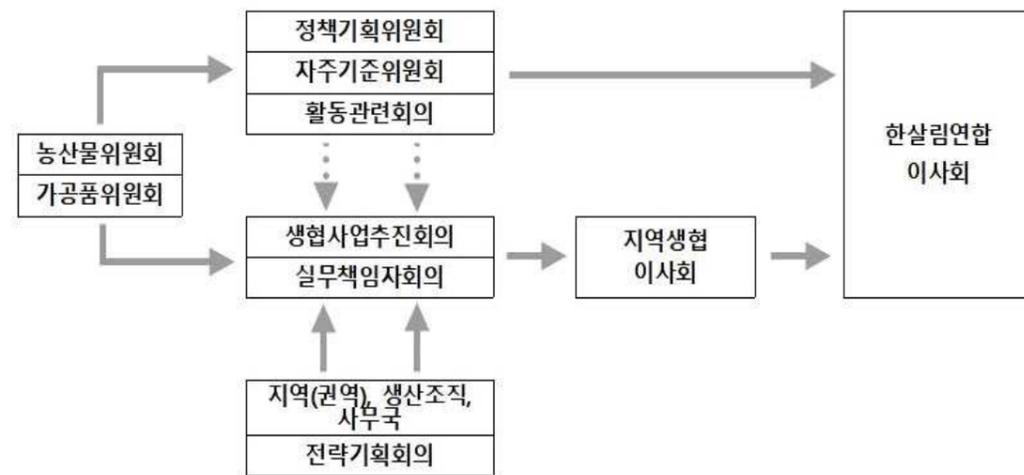
4. 핵심지표4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핵심지표4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생협 이사회, 대의원, 기초조직,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조합원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는지 처리 비율을 통해 검토하였다.

한살림에서는 조합원, 생산자, 실무자 등 전체 조직 구성원의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아래 한살림 회의체계(2021년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살림은 지역생협의 기초조직과 각종 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문별 전국 위원회 조직들과 실무자회의의 논의, 그리고 지역생협 이사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살림연합 이사회에서 조직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그림30. 한살림 회의체계>



출처: 안전 제안 경로를 통해 보는 회의체계도 (2021 연합이사회 4차 자료)

지표항목1. 조합원의 거버넌스

세부지표1. 이사회, 대의원 등 조합원의 조직 운영 참여

한살림의 거버넌스 구조에 직접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자로 활동하는 조합원은 최소 200명 이상이다. 이들은 전체 조합원의 약 0.03%이다. 이 중 대부분의 조합원은 지역생협 임원으로 참여하고, 연합 대의원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2022년 한살림서울은 지역별 조직 분화를 진행하여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합원 수 대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24.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 현황(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합 대의원(명)	196	196	200	200	211
지역생협 임원(이사, 명)	215	262	238	246	224

또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이들이 충분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등 대의조직의 구성원들이 주관적 견해보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대변하여 조직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의원 총회 외에 일반 조합원들이 의견을 전달할 소통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내부의 성찰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

이사회와 임원 구성은 협동조합조직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이에 임원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양적 자료 외에 임원 후보 선정 기준과 절차, 일반 조합원이 활동가나 임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비전과 프로그램, 리더그룹을 위한 교육체계 등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 변화로 인해 조합 활동과 운영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거버넌스 참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의 성별, 연령, 소수자, 인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살림의 경우, 임원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별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회의가 낮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거나 낮 시간에 시간 확보가 어려운 이들의 참

여가 기본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구성을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보다 민주적인 협동조합 거버넌스 참여의 모델을 한살림이 선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기준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대의원 총회 외에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집계 필요
이사회 안건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되는가?	집계 필요
대면 회의 외에 온라인 등을 통한 조합원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가?	집계 필요
이사회 구성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회인가? (성별, 연령, 직업, 소수자 등)	집계 필요
이사회 후보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전문성, 충실성, 경영 마인드(조직장, 리더십 경험), 독립성(특정 조직과 무관), 청렴도 등)	기준 확인

세부지표2. 의사결정 참여 과정의 민주성

한살림 각 단위조직, 지역(회원)생협에서는 이사회 진행 절차와 자료 공유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사회 등 주요 회의의 자료들이 회의 개최 전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률, 회의록 등이 작성되어 조합원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참여 과정의 민주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대의원의 의견 제안과 수렴 절차와 채택률을 별도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기준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사회 참석률과 관련한 내부 원칙이 있는가? (예. 95% 이상 참석)	○
이사회가 충분히 안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최소 2일 전에 자료를 제공, 보고하는가?	○
이사회 및 대의원의 안건 제안-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이사회 및 대의원 안건 제안 채택율은 얼마나 되는가?	집계 필요

세부지표3. 이사회와 대의원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만족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이사회 구성원과 대의원의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와 총회 등의 의제 설정과 의사 수렴 과정 등 각 단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진행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작업을 통해 회의 진행 시 보완해야할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준

이사회와 대의원 등 주요 의사결정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가?	
주요 의사결정자의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조사 필요

세부지표4. 각종 위원회를 통한 조합원 의견 수렴

한살림 조합원들은 각종 부문 위원회 등을 통해 1차 농산물부터 가공품, 환경문제, 홍보, 돌봄사업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생협에서 조합원들이 참여 중인 위원회는 물품위원회, 농산물위원회, 가공품위원회, 식생활위원회, 환경·탈핵위원회, 환경위원회, 홍보·기획위원회, 생명학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논살림위원회, 지역식생활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조합원들의 위원회 참여는 신규 물품 출시, 물품 가격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직접 심의, 결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생협의 운영과 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생협의 여러 위원회와 회의는 약 100여 개이며,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2019년에는 700명 이상이였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위원회 수는 증가했으나 위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COVID-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조합원 활동이 위축, 축소된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5.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현황(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생협 위원회(위원, 명)	492	519	731	400	데이터 부재
위원회(개)	78	81	82	102	116

☑ 기준

조합원의 위원회 참여와 규모	
이사회 등 의사결정단위 외 조합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가?	△

지표항목2. 조합원 활동 참여

세부지표1. 기초조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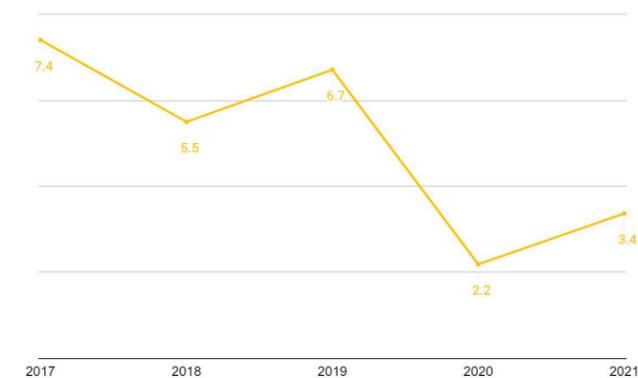
한살림에서는 조합원이 중심이 된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 기초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마을모임은 조합원-한살림-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단위로서 지역사회와 한살림이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마을모임을 중심으로 한살림의 가치와 정책, 물품과 생산자의 정보가 교류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모

임을 통해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한살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조합원 중심으로 조직된 매장모임은 한살림 매장이 단순히 유기농 물품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생명의 먹을거리 나눔터’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26. 조합원 기초조직 참여 현황 (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마을모임(개)	418	391	600	476	152
마을모임 참가인원(명)	16,835	13,044	25,220	8,557	13,110
소모임(개)	544	554	330	242	246
소모임 참가인원(명)	28,408	20,965	20,432	5,476	9,486
매장모임(개)	66	56	13	36	51
매장모임 참가인원(명)	2,008	1,650	1,056	2,193	2,430

<그림31. 조합원 기초조직 참여율(%)>



한살림의 기초조직은 COVID-19를 겪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줄어들었다. 전년대비 조합원은 증가했으나, 기초조직(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COVID-19로 2020년의 공급량은 전년대비 15% 이상 상승했으나 비대면 모임의 어려움으로 조합원 참여는 2.2%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살림은 2021년부터 온라인 모임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 기준

조합원의 기초조직 참여와 규모	
조합원과 매출 증가와 연동하여 기초조직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가?	△
기초조직을 통해 한살림의 가치와 협동조합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가?	△
기초조직을 통해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수렴하고 있는가?	△
기초조직이 조합원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 필요

세부지표2. 조합원 교육 제공과 참여

조합원의 협동조합 참여는 교육과 연결된다. 한살림에서는 한살림의 기본 철학과 생협 운영원리를 알려주는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지역생협에서 별도로 매장, 소모임 등에서 한살림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지 방문과 각종 강연회를 통해 직간접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회원)생협 이사회와 감사의 활동 기간에 따라 이사과정(입문/심화) 및 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생협 이사 교육과정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27.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구분	대상	내용/구성	필수 여부
신입조합원교육	신입 조합원	각 지역생협에서 별도 진행	자율
회원생협 이사과정(입문)	지역생협 1~2년차 신입이사	한살림 기본정보 및 조직구조 이해 (15시간)	필수
회원생협 이사과정(심화)	지역생협 2~3년차 이사	생협 운영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소통역량 강화 (10시간)	필수
감사 교육	지역생협 1~2년차 감사	생협 감사활동 기초지식 역할 이해 (5시간)	자율

☑ 기준

조합원 교육 제공	
신입 조합원에게 필수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
조합원 리더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

지표항목3. 조합원 의견 수렴

세부지표1. 조합원 의견 처리 비율

한살림의 물품 관련 조합원 의견 접수와 처리는 각 지역생협과 한살림사업연합 <조합원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합원상담실>을 이용하는 조합원은 2021년 약 8.3만 명이었으며, 상담건수는 22만 건이었다. ‘조합원의 목소리’를 통해 물품 개발과 개선, 운영과 관련된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평균 70% 가량의 처리율을 달성하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조합원의 목소리와 평가를 생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조합원이 제안한 의견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정리 중이다.

<표28. 조합원 의견 접수와 처리>

조합원의 목소리 처리 비율(%)			진행	2021년 목표
2019	2020	2021		
78	73	67	○	· 조합원의 목소리와 평가를 기준으로 생산 · 조합원 의견 관리 체계 정립

세부지표2. 세대별 조합원 필요에 부응하는 물품 개발과 공급

한살림에서는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고 세대별 요구에 부응하는 물품을 개발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2020년에는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살림 표준 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 131개 신규품목을 개발하고 69개 품목을 개선하였다. 2021년에는 66개의 물품

을 새롭게 선보였고, 52개의 물품을 개선하였다. 특히 신규물품은 간편식과 소포장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1개의 물품을 개발하였고, 2020년부터 채식인들이 이용가능한 물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29. 물품개발과 공급>

가정 편의식품과 소포장 가공식품 물품 개발(개)	진행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인 세대에 맞춘 소포장 가공식품 공급 확대 · 채식인이 이용가능한 물품 개발 · 영유아물품 개발 	○	확대

세부지표3. 조합원 만족도

한살림은 2014년부터 4년마다 전국단위 조합원 전체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물품관련 조합원 인식조사, 기타 비정기적인 현안 의견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조합원 대상 인식, 의견조사는 보다 체계화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해석하고 토론하는 후속작업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기준

조합원 의사 수렴 조사 진행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만족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가?	△

지표항목4. 조합원 참여의 다양성

세부지표. 사회적 약자의 용이한 접근(매장, 정보 접근성)

한살림은 고령자, 신체적·정신적 약자를 위한 물품과 서비스 제공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일본 생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물품 정보 음성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령자와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이들을 위한 물품구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살림에서 <들리는 소식지 한살림>을 제작할 계획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기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합원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매장은 휠체어, 유모차 등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가?	확인 필요
고령자, 신체적 약자를 위한 물품 안내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총회 자료집 등 조합의 정보를 다양한 방식(녹음파일, 점자, 수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

5. 전략지표1 -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지표항목1. 일자리 창출

세부지표1. 각 부문별 고용 현황

2021년 <전국 한살림 노동 기초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한살림 조직 및 한살림에서 출자하여 운영되는 조직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두 2,751명이다. 한살림은 생산-물류-소비 등을 아울러 사업과 활동을 하기에 전국에 걸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사업활동조직들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표30. 한살림 조직의 일자리 창출>

2021년 상반기 기준

구분	조직	소속 인원(명)
생협 부문	지역생협 25개	1,824
생산 부문	생산자연협회, 지역생산자연협회 15개(가공생산자연협회 포함)	67
전국 조직	연합, 사업연합	325
출자 조직	한살림안성마춤식품,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 강동구공공급식센터, 한살림우리밀제과 등	102
지원 조직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재단(한살림연대기금), 도서출판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펀딩 등	10
협력 노동	한살림운송협동조합, 물류지원협동조합 등	129
그 외	밥상나르미, 살림나르미 등	44
	총 합	2,715

표 기준

일자리 창출 현황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는 추세인가?	확인 필요
각 조직별 일자리 현황에 관한 기초 자료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가?	△

세부지표2. 여성 활동가 고용

한살림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협에서 근무하는 활동가 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00명~1300명에 달하며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살림 노동자 약 2,517명 중 활동가는 1,445명이며 실무자는 692명이다. 활동가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57%에 달할 정도로 한살림에서 일하는 여성, 특히 활동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살림 활동가는 매장에서부터 조합원 기초조직, 사무국 활동, 주문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표31. 생협 조직의 활동가 고용 현황(성비 포함)>

단위: 명

고용	2017	2018	2019	2020
활동가 남성	21	12	미집계	미집계
활동가 여성	1417	1427	미집계	미집계
활동가 총합	1,438	1,439	1,298	1,248

<표32. 생협 활동가 고용 규모>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조직활동가	168	134	107	110
매장활동가	1,228	1,202	1,167	1,113
주문상담활동가	34	11	12	4

사무국활동가(연합)		32	33	35
활동가	-	11	11	10
주문상담활동가		21	22	25
기타 활동가	33	15	12	21

☑ 기준

활동가 여성 고용 현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건을 여성 활동가에게 제공하는가?	△
40대 이상의 여성 신규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가?	○

세부지표3. 사회적 약자 고용

한살림의 사회적 약자 고용은 데이터 취합이 필요하다. 2018년 이전까지는 한살림연합 총회자료집을 통해 가공산지 생산법인의 사회적 약자 고용 데이터가 취합, 제공되었다. 하지만 지역생협 조직의 데이터는 집계되거나 취합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가공산지의 사회적 약자 고용 데이터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표33. 사회적 약자 고용(2016~2018)>

가공산지 생산법인 사회적 약자 고용(명, %)				진행
	2016	2017	2018	
장애인 총인원(명)	597	126	155	✓ 장애인 고용 비율 4%(2017, 2018년) ✓ 외국인 고용 비율 6%(2017) → 8%(2018)
장애인 남성(명)	85	89	100	
장애인 여성(명)	512	37	55	
외국인 총인원(명)	222	224	328	
외국인 남성(명)	117	110	163	
외국인 여성(명)	105	114	165	

☑ 기준

사회적 약자 고용 현황	
각 조직별 사회적 약자 고용 현황을 집계, 취합하고 있는가?	△

지표항목2.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세부지표1. 각 영역 정규직 고용

한살림의 고용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채용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한살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509명¹⁷⁾이다. 2,500여 명 중 실무자는 약 700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28%이고, 활동가는 약 1,760명으로 57%이다. 한살림은 실무자와 활동가라는 직군을 구분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두 직군의 근무조건과 노동조건은 차이가 있다.

☑ 기준

정규직 고용 현황	
정규직 고용을 기본으로 하는가?	○
직군별 근로조건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는가?	○

세부지표2. 노사협의회 운영

상시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한살림 조직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한살림 회원생협(연합, 사업연합, 전문지원기관 포함) 중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인 곳은 17개이며, '일터살림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근무조건이 다른 실무자와 활동가를 분리하여 각각 노사협

17) 미취합 조직 미 포함

의회를 구성한 지역도 있으며, 단일 형태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는 지역생협의 상황과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표34. 노사협의회 운영>

	설치 의무 생협	실무자 노사협의회	활동가 노사협의회	단일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곳)	17	9	6	6

☑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준수 및 노사간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

세부지표3. 생산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한살림 친환경농업 생산자의 절반 이상은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거나 혼자서 짓고 있지만, 노동력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인을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생산자의 41.7%는 외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채소와 과일 품목에서 각각 60%, 50%를 고용했다. 잡곡과 축산 품목을 다루는 농가에서도 약 45%의 외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주로 한시적으로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각각 41%와 21%이다.

농업 생산자의 고령화와 농업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부 노동자의 고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감사에서는 생산자연합회에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지속적인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생산자연합회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5. 생산지 노동자 고용 현황>

외부 노동력 활용여부	비율(응답자 수)
상시 한국인	14.7%(196)
상시 외국인	9.2%(122)
한시 한국인	41.0%(545)
한시 외국인	21.3%(283)
외부노동력 활용하지 않음	13.8%(184)

출처: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 기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생산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가?	△
생산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조사 필요

세부지표4. 최저/최고 임금 비율

한살림에서 일하는 이들은 실무자와 활동가 직군으로 구분되어 급여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활동가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는 실무자와 비교 시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 간 간극이 다소 벌어져 있다. 또 활동가의 경우, 생협노동의 특성 상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다.

☑ 기준

일하는 이들의 급여 형평성	
최저-최고 임금 비율	직군별 차이 감안하여 수치화 필요

세부지표5. 고충처리제도(접수, 발견, 해결 건수)

한살림은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인사, 급여, 업무환경, 복지, 직급 간 인간관계, 성차별 등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실무자와 활동가가 모두 참여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 기준

고충처리제도 운영 현황	
모든 지역생협에 고충처리제도가 운영 중인가?	△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확인 필요

세부지표6. 근무만족도

한살림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파악하는 정규적인 실태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실무자협의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근무조건과 만족도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있었다. 일하는 이들의 근무만족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준

근무만족도 현황	
근무만족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지표항목3. 성비균등 근로조건

세부지표1.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

2021년 기준, 한살림에서 일하는 이들의 성비는 여성 70.7%(1,779명), 남성 29.3%(738명)으로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활동가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실무자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남성이 75%(304명)로 여성보다 세 배 가량 많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성비가 균등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리더, 즉 임원(관리자)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기준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직 비율	
고용에서 적절한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여성 리더(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집계 필요

세부지표2. 성별 간 임금 격차 비율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지만, 성별 간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기준

성별간 임금 격차 비율	
성별간 임금 격차가 크게 나는가?	조사 필요

지표항목4. 교육 및 훈련 제공

세부지표1. 직원 교육 제공

한살림에서는 일하는 이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합입문교육, 활동가 교육, 학습모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만, 교육 관련 데이터가 조합원 교육(강의 참여 등)과 혼합되어 취합되고 있기에 직원-조합원 교육 데이터의 분리가 필요하다.

<표36. 직원 교육제도>

구분	대상	내용/구성
통합입문교육	신입 실무자, 신입 활동가 신입실무책임자	매월 2회차, 총 6개 주제로 진행
활동가 교육	매장활동가, 조직활동가, 주문상담활동가 이사장 공부모임	각 직무에 필요한 교육 제공
학습모임	조직 내 동일 직군	동일 직군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자율 구성과 운영비 지원

☑ 기준

직원 교육 제공 현황	
단계별, 필수교육 등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
직원 교육 관련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가?	△

세부지표2. 교육 만족도

직원 교육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통합입문교육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표37. 직원 교육 만족도>

구분	대상	만족도	
		2020	2021
통합입문교육	신입 실무자, 신입 활동가	8.55	8.70
활동가 교육	매장활동가, 조직활동가, 주문상담활동가	미집계	미집계
학습모임	조직 내 동일 직군	미집계	미집계

지표항목5. 직원의 건강과 생활

한살림에서는 일하는 이들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출퇴근 시간을 조절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 유급휴가¹⁸⁾, 출산휴가¹⁹⁾와 보호휴가를 제공 중이다. 살림꾼의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살림은 일하는 이들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기본적으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액검사가 필요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직원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도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기준

직원 건강과 복지 지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는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가?	○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복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

18) 한 명의 경우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19) 유산 시에도 가능

6. 전략지표2 -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

지표항목1. 지역사회 연대 및 정책 참여

세부지표. 지역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정책 및 의제 참여

한살림은 연합회 차원 뿐 아니라 지역생협에서도 광역단위 <먹거리연대>에 참여하여 ‘푸드플랜(Food Plan)’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는 푸드플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먹거리공동체추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살림형 먹거리운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푸드플랜과 관련한 내부 사례 공유와 ‘한살림 푸드플랜 활동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공유부엌 시범운영 공모사업’을 운영 중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유통 체계를 지역 내부에서 조달하여 생산-소비/도시-농촌의 선순환과 건강한 먹거리의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푸드플랜을 통해 국가-지역-소비자-유통-교육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 기준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정책 참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제를 발신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와 함께 정책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가?	○

지표항목2. 지역사회 돌봄 참여

세부지표1. 지역돌봄, 먹거리 나눔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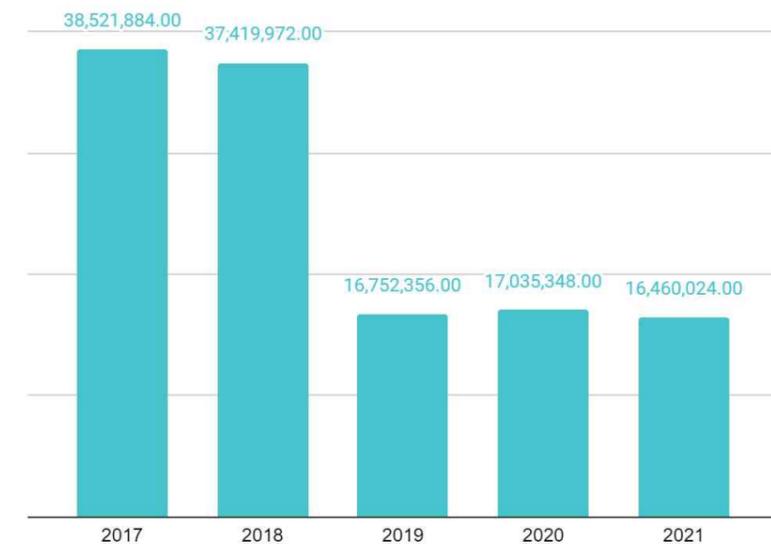
한살림은 먹거리 사업을 넘어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펼치기 위한 일환으로 ‘밥 운동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으로 지역생협과 <한살림재단>, <식

생활센터> 등이 연계하여 지역 내 먹거리 돌봄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던 2021년 각 지역생협에서 14개 먹거리돌봄 사업²⁰⁾을 진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 고령생산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학교밖 청소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와 간식, 도시락 지원 및 한살림 물품 꾸러미 배달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생협 10곳에서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 돌봄 사업²¹⁾의 일환으로 ‘공유부엌’, ‘함께 먹는 밥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지표2. 행복기금

한살림 생활용품 가운데 6개 중 물품 공급액의 2%를 ‘행복기금’으로 적립하여 <한살림재단>(2015년 설립)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살림재단>은 행복기금을 바탕으로 “한살림 사회적 책임 활동의 허브”로 역할하며 ‘생명밥차’ 등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과 한살림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여성위생 용품을 지원했으며, 그룹홈 아동 및 종사자에게 식재료 지원뿐 아니라 ‘지구를 위한 밥상’ 교육과 저소득가정에 약 5천만 원을 후원했다.

<그림32. 생활용품 공급에 따른 행복기금 적립(원)>



20) 2021년 약 1700만원

21) 2021년 약 2500만원

지표항목3.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여

세부지표.1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기업수, 물품 이용액)

한살림은 2021년 “사회적 경제 영역과 친환경 농가와 상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판로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2020년에는 한살림사업연합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 8곳에 14개 품목(가공식품 5개, 생활용품 9개)이 입점했으며, 매년 특정기간 동안 “사회적경제 상생기획전”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38. 사회적경제 물품 판로지원>

	연계 사회적 기업 수(개)	물품수(종)	공급액(원)
서울	11	75	74,233,635(2020년 기준)
수원	5	16	93,468,600
청주	연합 사회적 기업물품과 피터쿵(공정무역)	30	51,002,710
대전	지역 사회적 기업 물품 한시적 취급	-	-
제주	21	108	24,289,239
공통	연합 사회적기업물품 및 사회적경제 상생기획전 참여		

세부지표2.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

한살림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단체의 연대체에 참여하여 법 제정과 개정 및 기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39. 사회적경제 연대 활동>

이슈	내용	참여 주체	대상	정책 포지션
법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연합이사회), 온라인 서명운동	한살림연합	시민 조합원 국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지지
사회적금융	사회연대신협 설립과정 참여	한살림연합,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신협중앙회 금융위원회	사회적 경제 영역 간 금융기관 조성에 찬성
법 개정	생협법 개정 (비영리법인 규정, 생협의 책무-조합원 권익증진, 친환경제품 생산과 유통 활성화 등 추가)	한살림연합, 타생협연합회	공정거래 위원회	생협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 지지

지표항목4. 지구촌 생명살림운동 참여

세부지표1. 조합원의 국제사회 참여(모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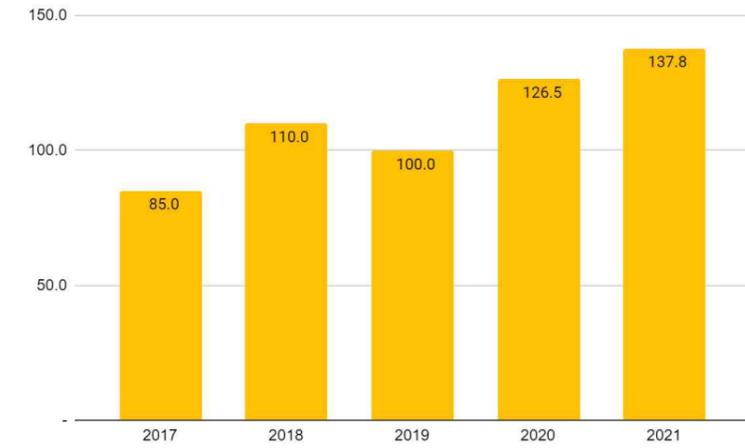
한살림은 국제사회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부터 필리핀 네그로스 농민과 연대하고 있으며, 마스코바도 설탕으로 민중교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물품 1kg 당 1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생산공동체 자립과 생태순환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생산공동체 두 곳의 공동체 식량자급을 달성했고, 유기농업 기술을 향상시켰다. 2020년 7월부터 2년에 걸쳐 약 1,9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작물 다양화와 생산농가 부가수입 확대, 생태순환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살림에서는 2017년부터 조합원들이 옷을 기부하면 이를 판매하여 파키스탄 알카이르 학교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옷 되살림운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137.8톤의 옷을 판매하여 파키스탄에 기부하였다. 또한 지역생협에서는 280여 명의 조합원이 약 40개의 모임을 만들어 '옷 되살림 활동'을 펼쳐 국내외에 1,400여 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피해자에게 약 3,800만원의 지원을 진행하였다.

<표40. 국제협력 사업>

주제	내용	참여
국제·지역 연대	민중교역	필리핀 네그로스 농민과 마스코바도 설탕 교역과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추진(약 1,900만원)
	옷되살림운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43개의 지역모임이 꾸려져 285명이 참여, 137.8톤의 옷을 모았고 총 14,327,280원의 기금이 모여져 알카이르 학교 지원 등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지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피해자에게 약 3,800만원 지원 (식량, 매트리스, 담요 등 지원)

<그림33. 옷되살림 운동 참여 추이>



☑ 기준

조합원의 국제사회 의제 참여	
국제 사회 의제에 참여하는 조합원 또는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

04

결론 및 과제

IV. 결론 및 과제

1.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별 측정 결과

한살림사회적가치 지표 측정을 통해 한살림의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불어 성과는 무엇이며 과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4개의 핵심지표와 2개의 전략지표, 그리고 세부 지표항목들을 통해 한살림의 현황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지표1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의 관점에서, 한살림 연합회와 사업연합의 의사결정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원수와 물품 공급액은 2019년까지 감소세에 있었으나 COVID-19로 인해 양자 모두 단기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COVID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수와 물품공급액은 다시 정체기에 들어서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원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청장년세대의 비율과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산지 행사, 생산지 탐방, 일손 돕기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교류와 행사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한살림은 지역사회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처하여 대사회적 설득 작업을 통해 예산 복원에 성공하는 등, 먹거리 관련 사회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핵심지표2는 ‘생산 안정성 확보’다. 전반적으로 생산자들이 처한 상황은 썩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공동체와 생산농가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들이 고령화되고 은퇴하고 있으며, 그만큼 청년생산자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생산자 확대와 청년생산자 육성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도출된다. 생산농가의 수취액은 감소하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생활환경, 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소득 이외에도 건강과 안전,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해서는 조사가 미비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도 충분하지 않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 농가의 피해가 심해지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한살림은 생산농가 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농가를 지

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잦아질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이러한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생산면적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체적인 인증 기준인 참여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결과보다 과정에 더 초점을 두어 토양 생태계를 지켜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잔류농약, 항생제, 방사능 등 물품 안전성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요구, GMO 완전 표시제 등 사회적 의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심지표3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이다. 한살림은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여 전 조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량을 투입하고자 하였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살림은 여러 연대조직과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여 기후위기·탈핵과 관련한 사회적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유리병과 공급상자 재사용, 옷 되살림 등은 조합원들의 협조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게 회수율이 높지는 않다. 조합원들은 한살림 물품의 포장이 보다 생태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안하였고, 이에 포장재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실무팀을 꾸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토박이 씨앗살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토박이 씨앗 품목의 공급량과 생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토박이 씨앗의 품목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핵심지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이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거버넌스, 활동 참여, 의견 수렴, 참여의 다양성 등의 지표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으로서 한살림은 조합원들이 조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반영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자의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살림 조합원들은 농산물 위원회, 가공품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의 영향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조합원 활동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마을모임과 소모임 등 기초조직의 수와 참여 조합원 수도 크게 감소하

였다. 온라인 모임 활성화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COVID 이후 위원회 활동과 조합원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조합원 교육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공할 것인지가 과제다.

한살림물품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의견은 조합원 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물품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신규 물품 개발과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매장 과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과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한살림은 4년마다 조합원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있으나, 주기가 길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이 제기한 전략지표1은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이다. 한국사회는 30여 년 전에 비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과 인권 현황이 현저히 개선되어 왔다. 또한 청년 세대의 노동과 일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중장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일터로서의 한살림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생명살림의 관점에서 노동과 일을 한살림식으로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부지표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한살림은 노동 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여 기초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 한살림은 실무자 노동과 활동가 노동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매장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여성들이다. 한편으로는 경력이 단절되기 쉬운 여성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가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다 현실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직원 중 여성 관리자(임원)의 비중과 성별 간 임금 격차도 중요한 성평등 지표인데, 이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여 향후 관심을 가지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충분치는 않지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아 휴직이나 건강검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제도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8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자료가 취합되었으나 그 이후는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파악이 미비하며, 고령인 생산자들을 포함한 생산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략지표2는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이다. 이는 한살림의 지향 중 하나인 ‘지역살림’을 지표화한 것이다. 한살림은 푸드플랜과 공유부역을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 연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품 나눔을 하는 먹거리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행복기금 적립을 통해 저소득가정 후원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취급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하여 법 제정과 개정 운동에 매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살림운동은 그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 이웃들과의 연대와 나눔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살림은 국내 농업 살림을 위해 노력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가까운 먹을거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국외 농민·대중들과 연대하여 생명살림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과제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민중교역을 통해 필리핀 네그로스 농민과 연대하고 있으며 옷되살림 운동으로 파키스탄 알카이르 학교와 팔레스타인 공습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을 보내고 있다.

다음의 <표41>은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에 따른 측정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에서 측정의 기준이 된 사회적가치 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한살림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살림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조합원, 생산자, 실무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회적가치 보고서는 그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41.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에 따른 측정 결과 요약>

지표 유형	지표 항목	세부지표	측정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 (핵심지표1)	1.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는 의사결정구조	1) 연합회/사업연합회 의사결정구조	○ 협동의 구조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음
	2. 소비 현황	2) 생산자-소비자 연대를 통한 물품 가격 결정	○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여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8년 감소하다가 COVID-19 이후 증가세를 보임
	3. 생산자-소비자 교류	1)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COVID-19로 증가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청장년세대 이용액은 지속적 감소, 조합원의 고령화를 보임
	4. 사회적 의제 제인과 참여	1)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 공공급식과 임산부 꾸러미 등 지역사회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회는 제공되나 COVID-19 장기화로 감소 상황 ○ 외부 조직들과 연대하여 먹거리 관련 사회정책 제언에 참여
생산 안정성 확보 (핵심지표2)	1. 생산 현황	1) 생산공통체 수, 공급액 증감	△ 생산공통체는 소폭 증가하고 있음
	2. 생산의 안정성	2) 생산농가 연령과 청년생산자 비율	X 생산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 생산자 비율이 적음
	3.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3) 생산농가의 수취액 증감	△ 수취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생산농가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핵심지표3)	1. 기후위기 대응	1)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참여인증 생산	○ 생산면적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2. 자원재활용	2) 전년 대비 생산면적 증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3. 생물다양성 확보	3)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참여인증 생산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4. 사회적 의제 제인-참여	1) 한살림 참여인증 제도	○ 농산물의 자율적 생산과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핵심지표3)	4. 품안정성 관리	1) 잔류농사검사 등 안전성 검사	○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며, 물품 안전성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5. 사회적 의제 제인-참여	1)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언	○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업 관련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1. 기후위기 대응	1) 먹을거리운동, 햇빛발전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역량을 투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 자원재활용	1) 유리병, 공금박스 등 재사용률(%)	○ 유리병과 공금박스 회수율과 재사용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핵심지표4)	1. 조합원의 거버넌스	2) 포장재 개선	△ 포장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조합원 활동 참여	3) 포장재 없는 날개 판매 확대	△ 포장재 개선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나,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음
	3. 조합원 의견 수렴	4) 홍보 및 사무공간 자원 절약	△ 홍보자료는 줄이고 있으나 기타 자원절약 계획과 측정치가 미비함
	4. 사회적 의제 제인-참여	1) 토박이 씨앗살림(생산면적, 공금함)	○ 토박이 씨앗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핵심지표4)	1. 조합원의 거버넌스	1)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의제 참여와 제언	○ 외부기관과 긴밀하게 연대하여 사회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 조합원 활동 참여	1) 이사회, 대의원 등 조합원의 조직 운영 참여	△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대표성을 기지는데 대한 검토가 미비함
	3. 조합원 의견 수렴	2) 의사결정 참여 과정의 민주성	○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거나, 실질적인 민주성을 기지는데는 확인이 필요함
	4. 사회적 의제 제인-참여	3) 이사회와 대의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핵심지표4)	1. 조합원의 거버넌스	4) 각종 위원회를 통한 조합원 의견 수렴	○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2. 조합원 활동 참여	1) 기초조직 참여	X 조합원의 기초조직 참여율은 점차 감소세에 있음
	3. 조합원 의견 수렴	2) 조합원 교육 제공과 참여	△ 조합원과 조합원리더에게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4. 사회적 의제 제인-참여	1) 조합원 의견 처리 비율	○ 조합원의 의견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며 건의를 처리하고 있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핵심지표4)	3. 조합원 의견 수렴	2) 세대별 조합원 필요에 부응하는 물품 개발과 공급	○ 필요에 맞는 물품을 개발하고 있음

		3) 조합원 만족도	△ 4년마다 조합원 의식조사를 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음 X 신체의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자리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이 미비함 ○ 여성의 신규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 않음 ○ 정규직 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여 노사간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 생산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과 인권 현황 파악이 미비함 △ 실무자-활동가 직군 구분으로 인해 간극이 있음 △ 지역생협마다 고충처리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음 X 근무만족도를 정규직으로 시행하지 않음 X 여성 관리직 비율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성별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단계별 교육 제공이 제공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 신입 교육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활동가 교육은 만족도 측정하지 않음 ○ 직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제도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사회 의제를 발신하고 정책변화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행복기금을 적립하여 지역의 약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4. 조합원 참여의 다양성		1) 사회적 약자의 용이한 접근 1) 각 부문별 고용 현황 2) 여성 활동가 고용 3) 사회적 약자 고용 1) 각 영역 정규직 고용 2) 노사협의회 운영 3) 생산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4) 최저/최고 임금 비율 5) 고충처리제도(접수, 발견, 해결 건수) 6) 근무만족도 1) 여성 고용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2) 성별간 임금 격차 비율 1) 직원 교육 제공 2) 교육 만족도 1)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1) 지역사회와 연대 및 정책 참여 1) 지역돌봄, 먹거리 나눔, 기부 등 2) 행복기금	
1. 일자리 창출			
2.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전략지표1)		
3. 성비균등 근로조건			
4. 교육 및 훈련제공			
5. 직원의 건강과 생활			
1. 지역사회 연대 및 정책 참여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 (전략지표2)		
2. 지역사회 돌봄 참여			

3.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여		1)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기업수, 물품 이용액) 2) 사회적경제 조직 협업	○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취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하여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고 있음
4. 지구촌 생명살림운동 참여		1) 조합원의 국제사회 참여(모금 등)	○ 국제사회 의제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와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2.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과제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측정,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측정 지표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조합원 의식조사, 총회자료 등 문헌 자료와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응답률이 약 30%였던 것으로 볼 때, 내부의 관심과 필요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첫 번째 과제와 연동되는 것으로 내부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룬 지표를 한살림 운동의 나아갈 방향과 적합성, 사업 현황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의 필요에 의한 지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보고서로 그치지 않는 지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데이터 취합 기준 마련과 자료 정비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최소 5년 내에 발행된 한살림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한살림연합과 사업연합의 총회자료와 연차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데이터와 내부자료의 정비가 연동되어야함을 발견하였다. 한살림의 경우 기후위기, 환경과 관련된 의제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 자원재사용 양과 횡수 등은 수취가 취합되고 있다. 반면, 직원 고용과 교육 현황, 조합원 주요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은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서술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는 시간 흐름에 따른 비교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한글파일(hwp)이 아닌, 엑셀 또는 내부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입력, 수정, 검토하는 작업을 도입해야 한다. 한글파일로 지역생협을 포함한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연차별 데이터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의 방대화도 오타와 데이터 오류를 바로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사회적 가치 측정을 검토·관리하는 특별위원회(가칭 한살림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또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작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2016년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사회적가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심과살림연구소의 내부 연구과제를 넘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의 수집과 사회적 가치 측정, 검토,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과 활동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 계획과 실행을 점검하는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설정한 주요 목표의 세부 내용 중 일부가 2021년 총회자료에는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목표 설정과 실행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그 과정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사업과 활동의 점검을 연결한다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과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